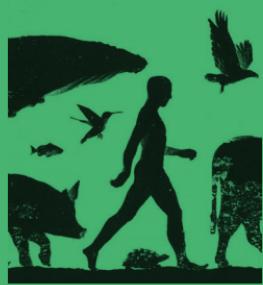


# Eco Book Festival



환경 책 큰잔치 21th Eco Book Festival

환경 책큰잔치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

- |    |                       |
|----|-----------------------|
| 4  | 인사말 : 사는 법을 일러주는 환경 책 |
| 6  | 환경 책이란                |
| 7  | 소개 : 환경 정의·환경 책큰잔치    |
| 8  | 2022 한우물상             |
| 10 | 제21회 환경 책큰잔치 프로그램     |
| 12 | 2022 올해의 환경 책 심사평     |
| 14 | 2022 올해의 환경 책 12권     |
| 40 | 2022 올해의 청소년 환경 책 12권 |
| 54 | 2022 올해의 어린이 환경 책 심사평 |
| 56 | 2022 올해의 어린이 환경 책 12권 |
| 69 | 되살리면 좋을 절판 환경 책       |
| 73 | 우리시대 환경고전             |
| 76 | 올해의 환경 책 최종 후보도서 목록   |
| 83 | 2022 환경 책 선정위원회 소개    |

## 사는 법을 일러주는 환경 책

Covid-19 상황을 3년째 맞다 보니, 줌으로 만나고 갑작스러운 누군가의 확진으로 모임이 미뤄지거나 하는 일들이 일상, 뉴노멀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 첫 해 긴장과 공포 속에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했던 때를 떠올리면 지금은 감염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에 한참 익숙해지는 듯합니다. 그러다 어쩌면 기후재난도 이렇게 익숙한 풍경, 감각이 되는 게 아닐까에 생각이 미치면 두려운 마음마저 듭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선 봄부터 초여름까지 대형산불이 발생해 숲과 민가를 태웠고 여름이 되자 백 년만의 비가 도시를 잠기게 했습니다. 물에 잠겨 집을 잃는 섬나라 사람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우리 도시 한복판의 반지하가 바로 우리에겐 섬나라였던 겁니다. 파키스탄은 고대하던 몬순이 대홍수로 닥쳐 국토의 1/3이 물에 잠겼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수백 년 전 유물들이 강바닥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전에 해마다 생신되는 최고 기온, 최대 규모 재난 소식에 먼저 적응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한동안 기후위기의 원인과 현상을 다룬 책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기후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관점, 마음을 다루는 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원인도 각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마다 위기가 닥칠 거라는 경고가 아니라 이미 닥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찾는 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 책 저자들은 인류세라 이름 붙인 이 시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한결같이 성장 담론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합니다. 많이 만들고 많이 소비하며 감당할 수 없는 폐기물을 만들고 다른 종, 다른 나라를 착취하며 살아가는 인류세의 삶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이제 환경책은 새로운 정보와 깨침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살아남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간된 환경책을 추려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남을지 함께 고민하여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1월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회

## 환경책이란

환경책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정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환경’에는 이 세상과 우리 삶에 얹힐 수 많은 이야기가 다채로운 내용과 방식으로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이에 우리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책들을 환경책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아마도 환경책 하면 다양한 환경문제를 분석·진단·전망하거나 그 해법과 대안을 모색한 책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듯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환경 위기를 낳은 문명과 사회 또는 삶과 생활방식을 비판하거나 성찰한 책도 포함시킬 수 있을 테고요. 하지만 환경책에 관한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좁은 의미의 환경문제나 환경 위기를 다룬 책만이 환경책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은 자연의 일부라는 생태적 사유가 바탕에 깔린 책. 지구 공동체와 여기에 깃들어 살아가는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신념이 담긴 책. 자연, 생명, 미래세대에 대한 감수성과 상상력이 숨 쉬는 책. 돈과 경쟁과 효율을 떠받드는 물신주의의 논리에 맞서 생명 가치와 삶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책. 인간-자연-사회가 사이좋게 어깨동무하는 새로운 ‘녹색 미래’에 대한 꿈과 믿음과 지혜가 아로새겨진 책. 요컨대, 생태주의, 사회정의,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등과 같은 가치들이 서로서로 기대고 어우러지며 빛내는 이른바 ‘녹색’의 이성과 감성으로 우리 앞을 살찌우고 우리 삶을 움직이는 책. 바로 이런 책들이 훌륭한 환경책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잣대에 따라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일반 성인용 환경책, 청소년 환경책, 어린이 환경책을 각각 별도로 선정합니다. 우리가 선별해 추천하는 환경책들이 보다 널리 알려지고 읽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것이 행동과 실천으로도 이어진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아주 작고 낮은 것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환경책과 함께, 동시에 환경책을 넘어, 지금 과는 다른 세상과 삶으로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환경책큰잔치의 슬로건이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인 까닭입니다.

##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 소개

### 환경정의

“환경정의란 환경을 이용하는 혜택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책임을 공평하게 나눠 가지는 것”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불결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거대 권력 때문에 이런 권리를 빼앗기거나 강요당할 때 우리는 ‘부정의’ 또는 ‘불평등’하다고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와의 사이에서, 강대국과 저개발국 사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에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한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균형의 추를 맞추는 행동, 이것이 바로 환경정의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의는 우리 사회의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단체입니다.

Website : [www.eco.or.kr](http://www.eco.or.kr)

Facebook : [/environmentaljustice](https://www.facebook.com/environmentaljustice)

Instagram : [/ecojustice4747](https://www.instagram.com/ecojustice4747)

Youtube : [www.youtube.com/c/환경정의](https://www.youtube.com/c/환경정의)

### 환경책큰잔치

환경정의는 시민들에게 환경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이 환경책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라는 모토로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합니다. ‘올해의 환경책’ 선정, 환경책 가이드북 발간, 다채로운 행사 진행 등 환경책큰잔치는 올해로 21회를 맞이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지만 좋은 환경책을 선정해서 알리고, 환경책을 읽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겠다는 환경정의의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 철수와영희 출판사

###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징검다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올해의 한우물상을 ‘철수와영희 출판사’에 드립니다.

사실 출판사 철수와영희는 ‘환경 정의 올해의 환경 책’과 인연이 깊은 출판사입니다. 2012년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우리 학교 텃밭’을 시작으로 ‘파브르에게 배우는 식물 이야기’와 ‘무지개 욕심 괴물’, ‘선생님, 코로나19가 뭐예요?’가 2014년과 2021년 올해의 어린이 환경 책에 선정되었고,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최원형의 청소년 소비 특강’, ‘10대와 통하는 기후정의 이야기’가 2015년, 2018년, 2021년 계속 올해의 청소년 환경 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환경 책 12권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소금쟁이가 들려주는 물속 생물 이야기’ 같은 생태그림책에서부터 동물권을 다룬 ‘10대와 통하는 동물 권리 이야기’, 지구온난화와 윤리적 소비에 이어지는 ‘선생님, 채식이 뭐예요?’, 플라스틱, 발암 물질, 환경 호르몬, 안전마크 등을 주제로 한 ‘선생님, 유해 물질이 뭐예요?’ 등 전염병, 팬데믹, 인권, 미디어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사회·생태 책들이 해마다 최종 목록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길지 않은 15년 새에 출판한 책이 130여권이 넘는다니 정말 꾸준하면서도 열심히 달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꾸준함 만으로도 격려받기에 충분한데 더 빛나는 것은 출판사 철수와영희의 출판철학입니다. 철수와영희가 출간하는 책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난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코로나를 얘기한다고 하면 단지 코로나19바이러스의 정체를 알려주는 데 급급하지 않고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이 되어야 방역에 성공하니 어렵고 힘이 들수록 민주적인 방식으로 서로 힘을 모아 연대하고 돌봄을 나누면서 사회적 면역을 길러야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책이 ‘민주주의와 정의로 이겨내는 코로나19’를 부제로 달고 나옵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출판사입니다.

어려운 한국 출판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을 위한 양질의 인문사회과학 도서를 펴내는 소중한 작은 출판사. ‘더불어 사는 삶’, ‘연대’, ‘평화와 인권’이라는 철학 아래 초심을 잊지 않는 우직함이 빛나는 출판사.

더불어 사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에 도움 되는 책을 만들고자 애써온 철수와 영희 출판사에게, 앞으로도 가치 있는 환경 책을 많이 부탁한다는 말씀과 함께 이 상을 드립니다.

## 21회 환경 책 큰잔치 프로그램

### 21th Eco Book Festival Program

축하해요  
올해의  
환경책

- [올해의 환경책]  
- 2022 올해의 환경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2 한우물상 시상  
- 2022 올해의 환경책 시상 (일반/청소년/어린이)  
- 선정비하인드 스토리 (토크토크 라이브)

2022.12.7 오후 5시~7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환경책  
읽고 가세요

- [환경책 전시]  
- 리페어 컬처, 나만의 책갈피와 제로웨이스트 선물  
- 나만의 인생 환경책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 온라인 전시도 진행됩니다 (12.7 오픈, 환경정의 홈페이지)

2022.12.12~12.16 오전 9시30분~오후 6시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나와  
어울리는  
환경책을  
추천드려요!

- [환경책 추천]  
- MBTI로 알아보는 나의 맞춤 환경책을 뽑아보세요  
2023.4  
환경정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 어려운 시기의 한 가운데

자연이 강제한 일시 멈춤, 자연이 강제한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벌써 세 해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다시 늘어났고 엄청난 산불과 폭우, 태풍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정말이지 황망한 참사들은 우리가 제대로 멈추고 거리를 두어야 할 것들에 대해 그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슬프게 일깨워줍니다. 아프다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생명, 어렵다는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도 정치권과 기존의 관성에 안주하는 경제 사회의 큰 톱니바퀴들 앞에서 우리는 더욱 막막해집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럼에도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움직임들을 살피고 전해줄 수 있는 게 환경책에 기대할 수 있는 한 역할이겠습니다. 더욱 힘들어지는 출판 환경 속에서도 정성스레 주제를 고르고 필자와 소통하며 책을 만들어 전해주신 출판인들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천착이 돋보이는 환경책들이 많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걸음 두걸음 더 들어가 보고 이리저리 짚어보고 알려주는 책들입니다. 단지 이론과 정보를 종합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매우 실용적인, 실천적인 태도와 비결을 알려주는 책들도 반가웠고 널리 읽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판단과 행동이 망설여지는 어려운 문제와 상황에 관해 사례를 통해 영감과 용기를 주는 책들, 달리 생각하는 방법을 과감하게 보여주는 책들이 많아서 선정위원들은 고민스럽고 행복한 심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도 가슴 시린 이 가을, 생명과 연대를 생각하는 의식적 일시 멈춤과 거리 두기를 환경책들과 함께 하시기를 권해 봅니다.

2022년 11월 환경책큰잔치 일반/청소년 선정위원회

# Eco Book Festival

- 
- 1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리베카 헌틀리 지음, 이민희 옮김 / 양철북 /  
2022.02.09
- 2 달콤한 바나나의 씹쓸한 현실 이시이 마사코 외 6인 지음 / 회화나무 / 2021.11.19
- 3 물이 몰려온다 제프 구델 지음, 박중서 옮김 / 북트리거 / 2021.11.15
- 4 반반종차별주의 에드워드 카롱 지음, 류은소라 옮김 / 열린책들 /  
2022.02.20.
- 5 생명을 보는 눈 조병범 지음 / 자연과생태 / 2022.02.17
- 6 알맹이만 팔아요, 알맹상점 고금숙, 이주은, 양래교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2.05.04.
- 7 원전마을 김우창 지음 / 한티재 / 2022.02.28
- 8 장점마을 — 탐욕이 부른 환경 참사 손문선 지음 / 신아출판사 / 2021.11.30
- 9 적을수록 풍요롭다 — 지구를 제이슨 히겔 지음, 김현우, 민정희 옮김 / 창비 /  
구하는 탈성장 2021.09.24
- 10 최전선의 사람들 — 후쿠시마 원전 가타야마 나쓰코 지음, 이연숙 옮김 / 푸른숲 /  
작업자들의 9년간의 재난 복구 기록 2022.04.18
- 11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호제 지음 / 창비 / 2022.03.18
- 12 탄소로운 식탁 윤지로 지음 / 세종 / 2022.05.16

#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리베카 헨틀리  
이민희  
한국환경정책  
및 rechtshilfe

기후변화, 이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리베카 헨틀리 지음, 이민희 옮김 / 양철복 / 2022.09

불타오르는 지구와 잦은 이상 기후 현상, 생태계의 붕괴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던 시기는 지났다. 올해 날씨는 예년에 비해 어떻다(주로 부정적이다)는 뉴스를 접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용어 그 자체에도 익숙해져 버렸다. 잦은 태풍과 홍수, 가뭄으로 다른 이들이 받은 고통과 피해를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러한 불행이나 자신과 가족, 지인들에게 닥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시절이 온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금의 시기를 ‘기후위기’라고 부르기로 했다.

자신을 환경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 여겼던 저자가 기후변화에 대한 위협을 실제로 받아들인 순간은 청소년들의 기후파업을 본 순간이었다. 저자는 청소년들의 기후 파업을 ‘배운’ 뒤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활동을 단숨에 해치운다. 사람마다 삶의 전환을 만드는 계기가 다르겠지만, 적어도 저자에게는 감정의 울림이 바로 그 계기가 된 것이다.

자연과학 내용보다는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들여다보는 이 책은 자칭 기후변화 시대의 자기 계발 안내자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른 이들과 어떻게 이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행동을 유도할지 생각해보는 계기를 준다. 행동에는 문제를 간과하는 정부와 기업을 향한 투표권 행사나 항의가 포함된다.

동시에, 나 혼자만이 기후변화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수많은 과학 데이터가 내 삶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 반문하는 이들이 일상의 운동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이다.

최선형 /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매니저

# 달콤한 바나나의 씁쓸한 현실

달콤한  
바나나의

씁쓸한  
현실



달콤한 바나나의 쓱쓸한 현실

이시이 미사코 외이언 지음 / 화화나무 / 2021.11.19

휴대용 케이스가 있고 그 케이스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과일일 것이다. 그만큼 바나나는 우리 일상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흔한 과일이다. 수입 과일이라 계절에 상관없이 살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 언제 어디서든 손으로 껌데기를 까서 과육을 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칼이나 도마 없이 먹을 수 있는 편리한 과일이다. 운동하고 난 뒤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끼니를 챙겨 먹기 바쁜 이에게 가방에 쏙 넣어 두었다 허기 해결해주는 만능 과일이기도 하다.

그런 바나나의 이면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한국 사회에도 패소가 되었다. 대개 단일 품종으로 재배하다 보니 병에 취약해 바나나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손쉽게 바나나를 먹어왔던 일상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나나가 자라는 환경과 바나나를 기르는 사람들 그리고 바나나를 둘러싼 시스템과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농약 공중살포다. 우리는 농약이 작물에만 뿐 아니라 환경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바나나 농장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농약 비가 떨어진다. 이는 농장 인근에 사는 어린이와 필리핀의 자연환경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다. 생산지의 해결되지 않는 빈곤 문제도 핵심이다. 필리핀 농부들은 수십 년간 전 세계로 바나나를 판매해왔지만, 여전히 빈곤하다.

필리핀에서 바나나를 수입하는 일본 생활협동조합과 시민은 30여년 전부터 그 대안으로 민중 교역을 실천하고 있다. 처음에는 제값을 주고 환경과 사람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바나나를 사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필리핀 바나나 농민들의 삶을 변화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판매용 바나나 농사 외에 자급용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그러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것은 녹록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의문을 던진다. 달콤한 바나나의 쓱쓸한 현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문재형 /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팀장 ·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물이 몰려온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여러 현상을 대체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 폭우와 산불, 물바다가 된 그린란드의 장면들은 충격적이지만 그런 이미지는 편적이며 우리는 온난화를 막연히 염려하고, 그런 추상성 때문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러나 이런 기후변화의 현상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하나를 파고들면 거대한 전체가 함께 드러난다. 제프 구델은 해수면 상승을 통해 이를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책의 원 부제처럼 “해수면 상승, 가라앉는 도시들, 그리고 문명 세계의 재편”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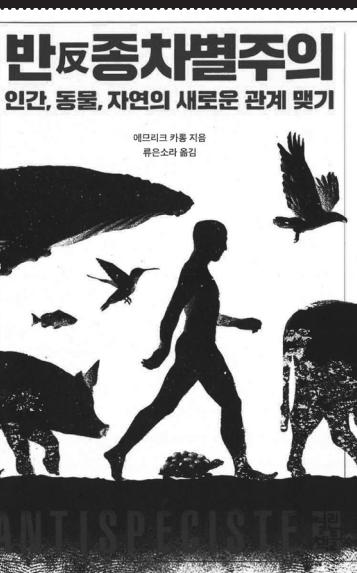
물은 몰려온다. 실은 다가오고, 올라온다.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지만 인류의 감각 속에서 즉각 대처하기엔 천천히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우리는 둔감하다. IPCC의 해수면 상승 보고도 언제나 한발 늦겠다.

물은 무서운 존재다. 우리 선조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라면 받아 근처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그러나 준설로 창조되고 에어컨으로 냉각되고 핵에너지로 전기가 공급되는 플로리다처럼, 사람들은 자연을 길들일 수 있다는 전제를 믿고 살고 있다. 그러나 자연은 믿음이 아닌 실체다. 해수면의 3피트와 6피트 상승의 차이는 관리 가능한 재난이냐, 수십 년간 난민 발생 참사이냐의 차이다. 많은 태평양 섬나라들에 있어 이것은 생존이냐 멸망이냐의 차이다. 첨단의 해군기지와 마이애미의 핵발전소까지 위협받고 있지만,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물을, 심지어 도시 전체를 공학 기술로 몇 미터 들어 올리고 거대한 인공 유타리를 건설하는 논의를 한다. 서울에 큰 빗물 터널을 만들어서 폭우에 대응하자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소유자들은 자산 가치의 상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알래스카 빙하 손실의 현장을 진지하게 방문하지만, 그러나 화석연료 개발을 당장 멈출 수는 없다는 현실론을 내비친다. 저자는 여기서 진정한 변수는 기후과학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복잡성이라고 말한다. 자연과 인간 모두를 이해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반종 차별주의



인간, 동물 그리고 자연을 화해시키자

“고기를 먹는 사람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거인, 오그르(Ogre)다.(135쪽)” 나는 이 한 문장이 이 책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한다. 종차별주의를 반대하건 반대하지 않건 15년은 족히 살 수 있는 돼지가 6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20년의 수명을 가진 송아지가 5개월 만에 도살되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지어 10년을 넘게 살 수 있는 닭들은 태어난 지 40 일 만에 닭고기로 인간의 식탁에 오른다.

종차별주의란 무엇인가? 자신이 어떤 종에 속한다는 이유로 다른 동물에게 차별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에밀리크 카롱은 종차별주의가 두 가지 차원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첫째, 종차별주의자는 인간이 아닌 동물의 고통은 인간의 고통보다 덜 중요하다고 단정한다. 둘째, 종차별주의자는 근거 없는 범주를 만들어 반려동물, 식육 동물, 취미 동물, 야생동물, 해로운 동물, 보호 동물, 혐오 동물 등으로 구분한다.

이 책은 일종의 반종차별주의자 선언이다. 카롱은 반종 차별주의가 신 코페르니쿠스 혁명인 동시에 21세기 이데올로기 혁명이라고 말 한다.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태양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반종차별주의자는 인간이 모든 생명체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것이 이데올로기 혁명인 이유는 이윤, 수익, 성장과 같은 기준을 정치적·민주적 프로젝트를 통해 행복, 복지, 존중, 균형과 같은 기준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종차별주의자가 상대해야 할 두 가지 부류의 종차별주의가 있다. 하나는 인간중심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혐오주의이다. 인간중심주의자는 “나 역시 동물을 사랑한다”고 운을 뗈다. 그리고 바로 덧붙여 “하지만”이 따라 나온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을 구타하는 남성이 “나는 아내를/여자친구를 사랑한다. 하지만...”이라고 말하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 카롱은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긴 폭력성을 경계한다. 사랑하지 말고 존중하라. 당신이 사랑한다는 그 존재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다.

인간혐오주의도 문제다. “인간의 멸종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식의 주장은 타인에게 죄책감을 돌릴 뿐 그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못한다. 물론 인간이 동물에 가하는 학대의 진상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인류에 대한 환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희망을 잃는다면 남는 것은 “내일은 없으니 오늘 배불리 먹다 죽자.”는 무책임과 방종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저자는 ‘생태 민주주의’의 원리가 작동하는 ‘생명체 공화국’을 구상한다. 생명체 공화국은 두 가지 기본 원칙을 지닌다. 첫째, 생명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법률 및 정부 결정의 장기적 결과를 표명할 소위 ‘자연 의회’를 설립한다. 둘째, 이 의회에서 비인간 동물의 이해를 표현할 감각 있는 비인간 동물의 대표자를 지정한다. 너무 허황한 상상일까? 그렇지 않다.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회의에 부치고 있음을 기억하자.

우리는 최대한 가능성을 끌어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정신을 오직 인류의 진정한 진보를 향해 열어 두자. 반동차별주의는 인간이 우월하다는 교만함을 멈추게 한다. 인간은 수백만 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어느 정도 다른 수천 종의 동물들과 같이 행동한다.” (421쪽)

윤상혁 /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생명을 보는 눈



생명을 보는 눈

조병범 지음 / 자연과 생태 / 2022.02.17

‘생명이 보는 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며’. 저자 조병범 님의 생각이고 바램이다. 지도를 보는 눈에서, 풍경을 보는 눈에서, 생명을 보는 눈으로 변화하기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파주 출판단지와 이웃한 돌곶이 습지, 이름도 지녔으나 지도에 조차 나오지 않는다.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데,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 자연을 품은 생명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다.

지금, 어떤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나요?

지도를 보는 눈은 사람 위주로 자연을 재단하고 개발합니다.

풍경을 보는 눈은 한발 떨어져 아름다운 자연만 감상합니다.

생명을 보는 눈은 잠시 멈추고 자연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책 뒤표지에 나온 소개 글이다. 저자 조병범님은 파주출판단지에서 출판 일을 하면서 꽤 자주 돌곶이 습지를 지속적으로 관찰, 그 속에깃 들어 있는 생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전작 <시민과학자, 새를 관찰하다>에서 새 소개를 중심으로 시민과학자의 목소리를 내었다면, 이번에는 새 관찰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들의 삶 터, 생명을 보는 곳에 눈을 돌리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시선을 높인다.

‘이름은 시선을 담는다’, ‘계절보다 빠르게 오가다’, ‘작은 날개에 큰 하늘이 가득하다’에서 보는 소제목들도 새롭게 다가온다. 주변 어디에나 있을 작은 습지에 다양한 생명의 것들에 사는 아기자기하고 야생 자체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있다.

함께 읽고 찬찬히 이제, 어떤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까요? 하는 질문에 답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에 대한 시선이, 앞으로 개발과 보전에 있어 큰 물음이라고 생각한다.

고대현 / 에코샵홀씨 대표

# 알맹이만 팔아요, 알맹상점

알맹이만 팔아요,

## 알 맹 상 점

용기를 내면  
세상이 바뀌는  
제로웨이스트  
습관



“나의 소비가 우리의 삶을 들볼 수 있다면”  
단단한 작은 마음들이 만들어낸 그런 소비 생태계



알맹이만 팔아요, 알맹상점

고금숙, 이주은, 양리고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22.05.04.

내가 사는 동네에 알맹상점이 있다. ‘용기 내 프로젝트’ 포스터를 보고 용기의 중의적 뜻을 적절하게 활용한 게 멋졌다. 나도 아이 키우며 물티슈 대신 플라스틱 반찬 통에 젖은 손수건을 넣고 다니면서 기저귀를 뗴 때까지 사용했던 기억이 난다. 그래서 ‘알맹상점’ 이야기가 맘에 더 다가 왔다.

알맹이만 찾는 알짜들과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를 내걸고 망원시장에서 시작한 동네 모임이 알맹상점의 시초가 된다. 장바구니 대여하기, ‘용기 내’ 활동하기, 알맹이만 파는 가게 하기 등 생활에서 실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시작했다. 망원시장 상인들과 함께하여면 스펀지에 물 스며들 듯 천천히 해야 한다. 치밀한 계산속에 활동과 캠페인, 홍보 등을 이어 나가 친밀감과 호응도를 높였다. 필연처럼 방콕의 ‘베터 문’을 방문하고 운영자를 인터뷰하고 나서 한국에서 최초로 ‘카페엠’ 한 쪽에서 세제 리필 팝업 가게를 시작했다.

플라스틱 자유 활동과 자원회수 재활용에 집중하며 불편을 즐기기 시작하는 모습은 나를 돌아보게 했다. 물건은 소비뿐 아니라 생산과 정도 중요한데 회사에 직접 요구해서 고쳐나가는 모습에서 ‘브리타 어택’ 이야기는 감동 그 자체였다. 자원회수 과정에서 개인들의 플라스틱 자유, 제로웨이스트 욕구도 생각 보다 높았다는 걸 재활용을 들고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었다.

소비자는 물론 시장 상인에서부터 회사의 대표들, 환경부 장관까지 만나 소비자의 목소리를 내고, 듣고 시정하게 만드는 과정들. 알짜러 3인 사장님의 겪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뿐 아니라 생각의 전환까지 일어난다. 깜빡깜빡했던 장바구니를 더 잘 챙겨야겠다.

정영화 / 동네책방개똥이네책놀이터 대표

# 원전 마을



## 원전 마을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투쟁 이야기

김우상 지음  
경주환경운동연합 기획

한국어판

### 원전은 안전한가?

원전 안전 관리는 정말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해 10월경 한 언론 매체에서,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수조에서 매일 7리터 정도의 물이 새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 말은 방사능 오염수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로를 운영해 온 수십 년 동안 수조에 대한 실질적 보수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언제부터 오염수가 새기 시작한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원전 인근 주민의 이주 요구가 8년째인 것만 보더라도 그 이전부터 새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것만 해도 상당한 기간이며, 오랜 세월 동안 오염수가 새어 나온 양을 생각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인근 지역의 지하수와 토양 오염, 이에 따른 주민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심히 우려된다.

올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11년이 되는 해이다. 원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은 무뎌지고 원전 안전 신화는 강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염려가

원전마을

김우상 지음 / 한티제 / 2022.02.28

들 때, 원전마을이라는 책이 나왔다. 8년간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를 요구하며 온몸으로 싸워오고 있는 월성 원전 인근 주민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담겨 있다. 주민에게는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너무나도 소박하고 평범한 소망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너무나 힘든 현실이기에 절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책은 작가가 8개월여의 현장 연구를 통해 월성 원전 인근 주민 중 누가, 언제, 왜, 어떻게 이주대책위를 만들어서 한수위를 대상으로 이주를 요구하게 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은 이사하고 싶어도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어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어려워 수용소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 전하고 있다.

원전 인근 지역의 주민과 가축은 여러 이상한 증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가축은 암소의 불임이 찾고, 기형 가축도 많이 태어나고 있다. 주민은 돌아가신 분들의 90%가 암이 원인이고, 여성은 갑상샘암 수술이 가장 많다고 한다. 20여 년 전에는 중학생 15명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월성 원전 주변 빗물과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타지역 원전보다 5~10배 정도 높고, 월성 인근 주민 체내의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경주시내권 주민보다 25.7배가 높다고 한다. 불안함과 고통에 떨며 지낸 세월이 수십 년이고, 이주를 요구한 것만도 8년이다. 그 고통은 직접 겪지 않은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인간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민의 요구가 무리한 것일까?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 요구를 그렇게 수용하기 어려운 것일까? 혹시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면 월성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방증이 되므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보관 수조가 균열로 오염수가 새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매체의 소식을 접하고, 책을 통해 원전 인근 주민의 오랜 기간 시달리는 투병, 안전한 곳으로의 이주를 요구하는 오랜 투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합리적인 의구심이 아닐까? 월성 원전은 정말 안전한가? 월성 원전의 안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서정진 / 대지고등학교 교사

# 장점마을 탐욕이 부른 환경 참사

장점마을 환경오염 피해사건 원인규명 활동 기록서

탐욕이 부른 환경 참사

## 장점 마을

손문선•



장점마을 — 탐욕이 부른 환경 참사

손문선 저작 / 신아출판사 / 2021.11.30

22년 전 평화롭던 농촌 마을에 비료공장이 들어섰다. 그 후 마을 주민이 하나둘 암에 걸리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전체 주민의 80명 중 33명이 암 환자가 되고, 이 중 16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간암, 위암, 담도암, 피부암, 폐암, 유방암 등 온갖 종류의 암들이 발생했다. 담도암과 피부암은 다른 지역에 비해 15~20배나 발병률이 높았다. 주민은 암 발병 원인이 비료공장일 것으로 의심했다.

2017년, 주민들은 대책위를 만들어 진상 규명을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주민들이 위촉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치밀하게 조사하고 추적한 결과, 비료공장이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을 대량으로 들여와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이 대기 중으로 퍼져 나갔음을 밝혀내게 된다. 주민들과 민간전문가들의 노력은 애초에 소극적이었던 환경부를 움직여, 역학조사 결과 비료공장의 연초박이 암 발병의 원인이었다는 공식적인 판정을 이끌어내게 된다. 장점 마을 사건은 유례없는 환경 참사이면서, 우리나라에서 환경오염과 비특이성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최초로 인정받은 중요한 사건이다.

『장점 마을—탐욕이 부른 환경 참사』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시민운동가가 직접 정리한 귀중한 기록이다. 사건의 발단부터,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주민과 민간전문가들의 치열한 싸움의 과정,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대참사의 경위까지를 소상하게 기록한 생생한 르포르타주면서, 참사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분석한 심층 보고서이다. 지방과 농촌에 집중적으로 위치하는 환경위험시설 때문인지역주민의 피해라는 환경불평등 이슈를 깊이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증언록이기도 하다.

남태제 / 다큐영화 감독·환경 저널리스트

# 적을수록 풍요롭다 —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적을수록 풍요롭다 —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제이슨 헐 저 / 김현우·민정희 옮김 / 창비 / 2021.09.24

어쩌면 이미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단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협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물질적 풍요를 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의·식·주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솔직히 더 나아질 것을 바라기까지도 하면서) 외치는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 우리 DNA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뿌리내려 생각과 행동, 깊은 곳까지 관여하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인가? 또, 막상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미 정답은 모두가 알고 있다. 간단하다. 성장에서 벗어나면 된다. 바로 탈성장이다.

물론, 탈성장이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무엇이 탈성장인지 인지하고 어떻게 탈성장을 할 것인지를 체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적을수록 풍요롭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 풍요가 내 삶에 와 달게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이다. 인식의 전환을 시작해보자. 성장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허구인지 GDP(국내총생산)의 증가가 우리의 행복을 답보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다.

중요한 것은 GDP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진 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다. 우리의 생산과 나눔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가 땅을 딛고 서 있는 지구의 자연과 동물과 생명체들을 고려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생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수직적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평적 시스템을 만들자. 일방적으로 의존된 관계가 아닌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만들자. 부를 쌓기보다 옆으로 나누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다. 물질적 풍요를 잃고 관계의 풍요를 얻고 더 나아가 기후위기 넘어 새로운 미래를 얻게 될 것이다.

문재형 /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팀장·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최전선의 사람들 —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들의 9년간의 재난 복구 기록



최전선의 사람들 —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들의 9년간의 재난 복구 기록

기타야마다 나쓰코 지음 | 이연숙 옮김 / 푸른숲 / 2022.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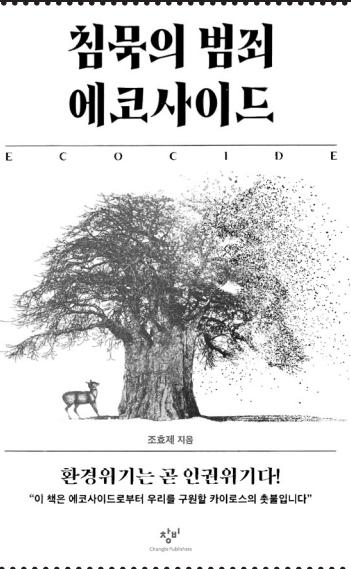
일군의 사람들이 방호복과 판초를 겹쳐 입고 방독마스크를 쓴 채로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며 고농도 방사선 구역으로 전력 질주한다. 그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볼트를 조이고 차폐막을 설치하고 장비를 보수하는 짧은 시간에도 가슴에 부착된 방사선 계측기는 연신 경보음을 울려댄다. 시간이 흐르고, 방사선 피폭량이 원전 작업자 피폭 제한치를 넘기게 되면 그들은 해고된다. 그리고 새롭게 투입된 사람들이 또다시 한계피폭량에 이를 때까지 이를 반복한다. 그들은 후쿠시마 원전 하청노동자들이다.

원전 사고를 수습하고 복구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일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임금은 줄어들고 일자리는 사라졌다. 가정도 무너졌다. 암 환자가 속출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후쿠시마 원전 하청노동자들의 이런 현실은 『최전선의 사람들』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방사선 총 알 받이’

이 책은 도쿄신문 기자인 저자가 2011년부터 9년 동안 후쿠시마 제1 원전 수습과 복구 작업을 담당했던 하청노동자들과 하청기업 관계자들을 폭넓게 인터뷰하고, 시시각각 진행되는 상황들을 치밀하게 취재한 결과물이다. 최전선 당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원전 사고가 얼마나 수습 불가의 대재앙인지, 원전 사고 수습의 최전선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는 최전선의 사람들이 어떻게 버림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의 실상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낸다. 사고 후 6년이 지나도 원자로 격납용기의 방사능 수치가 40초 만에 즉사하는 수준이었고, 정화 처리를 했음에도 오염수 속에 요오드 등의 방사성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녹아서 놀어붙은 핵연료의 잔해를 치우고 원전을 폐로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최전선의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감춰진 진실을 직시하게 하는 귀중한 기록이다.

남태제 / 다큐영화 감독·환경 저널리스트

# II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 공존을 위한 지도 그리기

1970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쟁과 국가책임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생명윤리학자 아서 갤런은 베트남 전쟁에서 발생한 자연 파괴 행위를 ‘에코사이드’라고 명명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고의적·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인 에코사이드는 반인도 범죄로 간주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미군에 의해 살포된 고엽제를 단순한 제초제가 아니라 화학전의 무기이자 인간이 사는 환경 자체를 절멸시키는 범죄의 도구로 규정한 것이다.

그로부터 40년 후인 2010년 스코틀랜드 출신의 변호사 폴리 히긴스는 유엔국제법위원회에서 ① 제노사이드(집단살해죄), ② 반인도적 범죄, ③ 전쟁범죄, ④ 침략범죄를 국제 핵심범죄로 규정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에코사이드 범죄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 말랄라 유사프자이, 그레타 툰베리, 그리고 히긴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

조효제 지음 / 정미 / 2022.03.18

스의 유지를 이어받은 국제 환경-인권단체 ‘스톱 에코사이드’ 등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2021년 6월 에코사이드의 법적 정의에 관한 초안이 완성되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에코사이드란 어떤 행위가 환경에 극심하고 광범위한 손해 또는 극심하고 장기적인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실질적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적 행위 또는 무분별한 행위를 뜻한다.

조효제가 <침묵의 범죄 에코사이드>를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첫째, 현재의 상황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만 국한하여 보아서는 안 된다. ‘2050 탄소중립’은 우리가 달성해야 할 최소치일 뿐이며 탄수 부족, 토지 훼손, 산림파괴, 유해 화학물질 범람, 생물 다양성 상실 등 지구행성이 처한 총체적 난국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기후-생태 복합 위기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불평등, 인권박탈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생태환경과 인권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회정의, 기후정의, 환경정의, 생태정의는 큰 틀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 셋째, 인간 중심의, 특히 개인 차원의 권리 추구가 생태위기를 악화시킨 하나님의 원인이다. 따라서 ‘자연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인권개념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는 “인류세를 맞아 자연의 권리와 절제된 인권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 재산권과 성장 지상주의로 이루어진 ‘반생명’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일단 생명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면 절반은 이룬 것이다. ‘거시적 구조’, ‘미시적 실천’,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중간 범위’라는 전환의 3가지 전략과 ‘현세대내 연대’, ‘세대간 연대’, ‘사람과 자연의 연대’라는 연대의 3가지 차원을 입체적으로 결합하여 인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카이로스의 촛불을 밝혀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거대한 변화는 거대한 대화로부터 시작한다. 이 책은 거대한 전환의 대화에 참여하려는 이들을 위한 훌륭한 마중물이다.

“비상 상황이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순간이고 새로운 어떤 것이 탄생할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폴리 히긴스)

윤상혁 /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 탄소로운 식탁



탄소로운 식탁  
윤지로 지음 / 세종 / 2022.05.16

책 제목에 눈이 간다. 요즘 화제가 되는 ‘탄소’라는 단어도 그렇고, 오랜 만에 들어 봄 직한 오순도순 맛나게 먹는 집밥의 장소 ‘식탁’이라는 단어도 눈에 들어온다. 내용은 가볍지 않다. ‘우리가 놓친 먹거리 속 기후위기 문제’라는 책 부제가 엄중한 기후위기의 문제에서 일상생활 속에 먹는 음식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부터 육식을 조금 줄이자는 제안을 한다.

‘우리의 한 끼가 지구의 1도를 낮출 수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환경 기자로서 다양한 정보를 잘 수렴, 정리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높인다. 먹거리가 식탁 위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지 그 과정과 해법을 면밀히 다루고 있다. 사실, 결론은 좀 심심하다. 정책 부재와 정치 문제까지 제기하며,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야기 해주기를 바라는 욕심도 있었다. 그래도 나로부터의 동기부여와 실천을 위한 설득하는 내용으로서 손색이 없다.

요즘 기후위기에 대한 열강을 하시는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 추천사 제목이 ‘먹거리를 바꿔야 삶은 계속된다.’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기후위기를 불러오고, 기후위기는 다시 먹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인 듯한 먹거리는 사실 기후변화의 주요 가해자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신다. 소비자로서 저탄소 먹거리를 골라야 하며, 시민으로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먹거리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 조금은 용기가 날 수 있겠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요구하자. 제로 칼로리가 아니라 제로 탄소 밥상도 상상해보자.

고대현 / 에코샵홀씨 대표

#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 1 10대와 통하는 채식 이야기 이유미 지음 / 철수와영희 / 2021.11.22
- 2 그림으로 읽는 친절한 플라스틱 이야기 인포비주얼 연구소 지음, 위정훈 옮김 / 북피움출판사 / 2022.12.21
- 3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 세계 51가지 기념일로 쉽게 생각하는 환경 인문학 최원영 지음 / 블랙피쉬 / 2021.09.13
- 4 도대체 기후위기가 뭐야? 안야 로임쉬셀 지음, 홍화정 그림, 이수영 옮김 / 비룡소 / 2021.11.25
- 5 도시를 바꾸는 새 티모시 비틀리 지음, 김술 옮김 / 원더박스 / 2022.01.05
- 6 동물복지수의사의 동물따라 세계여행 양효진 지음 / 책공장더블어 / 2022.01.25
- 7 미래에너지 좀 아는 10대 이필렬 지음, 방상호 그림 / 풀빛 / 2022.02.15
- 8 숲에서 태어나 길 위에 서다 우동걸 지음 / 책공장더블어 / 2021.10.28
- 9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남종영 지음 / 북트리거 / 2022.02.10
- 10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권승문, 김세영 지음 / 휴머니스트 / 2022.04.18
- 11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 이영경 지음 / 한언출판사 / 2022.01.20
- 12 지구를 살리는 옷장 박진영, 신하나 지음 / 창비 / 2022.04.25

10대와 통하는 채식 이야기



이유미 지음 / 철수와영희 / 2021.11.22

# 10대와 통하는 채식 이야기

I

채식은 식습관의 단순한 형태를 넘어 삶과 생명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생활방식과 사회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무언가를 쉽게 바꾸기 어렵다는 군대에서조차 채식 급식을 허용한다고 하니, 채식이 만드는 흐름이 있긴 한가 보다. 그러나 아직은 육류 위주의 식습관이 주류화된 한국 사회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저자는 채식을 통해 공적인 가치를 드러내지만, 채식만이 윤리적인 것이라거나 채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등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밥상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또한 채식을 시작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나 더 나아가 비채식인과 겪을 수 있는 마찰을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자각과 공장식 축산업의 문제, 기후위기, 식량 부족 문제와의 연결을 통해 사회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인간과 다른 대상과의 관계 설정을 재정립하는 채식을 통해 우리 각자가 지구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약자의 권리 를 위해 싸우고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모두의 행복한 공존을 위하는 일련의 운동을 비거니즘의 실천적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이 10대와 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인지, 채식이 자녀의 성장에 해를 끼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채식인을 지향하는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최선형 /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매니저

## 그림으로 읽는 친절한 플라스틱이야기



큰 비닐 안에 투명플라스틱 통, 그 속에 한 개 한 개 비닐에 싸인 과자를 먹고 나서 비닐 쓰레기를 버려본 사람은 '이 많은 비닐이 다 어디로 갈까?' 한 번쯤 궁금증을 가져 봤을 거다.

이 궁금증을 도표와 도식, 삽화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플라스틱 성질을 초콜릿과 쿠키로 비유하고, 작은 문자의 결합을 '자유로운 손'에 빗대어 설명하니 흥미롭다. 생소한 단어나 명칭에 대해서는 '~라 불리는 것도 있다.' '~라고 한다.'로 풀어서 쓰고 있어서 이해를 돋운다.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은 생활방식이 변화되며 쓰레기 발생이 늘고 이에 따라 사망과 홍수 발생 등 문제가 생겼다. 개발도상국의 심각한 쓰레기 사정으로 비닐봉지규제를 하는 내용은 플라스틱 문제의 경각심을 높인다. 최근에 알려진 미세플라스틱 역시 자연분해는 안 되는데 해양을 떠돌면서 유해 물질을 운반하는 역할까지 한다. 더불어 오염물질의 농도를 높여 결국은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준다. 인과관계를 그림으로 한눈에 보여주니 미세플라스틱이 '나의 문제'로 다가온다.

국가에서는 이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리사이클링 시도, 자원회수,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 신소재 개발 등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변하지 않아 악순환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결국 탈 플라스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뀌고, 개인과 기업, 국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한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것은 불과 70년 정도다. 플라스틱이 올리는 경고의 '종'마저 플라스틱 종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현실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게 된다.

정영화 / 동네책방개똥이네책놀이터 대표

그림으로 읽는 친절한 플라스틱이야기

인포비주얼 연구소 지음·위정훈 옮김 / 북피움출판사 / 2022.12.21



##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 세계 51가지 기념일로 쉽게 생각하는 환경 인문학

달력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먼저 시간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의 기념일도 달력을 통해 계획을 잡고 기대를 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기념일들이 달력 속에 담겨 있다. 이 책에 소개된 51가지 기념일을 만나다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이렇게나 많고 그만큼 실천할 일도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습득하게 된다. 달력 속의 기념일을 통해 나를 만나고 사회를 생각하고 자연과 뜻 생명들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세계 거북의 날, 국제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국제 고양이의 날 같이 생소한 날부터 식목일, 지구의 날, 세계 습지의 날처럼 어느 정도 익숙한 기념일까지 설명되어 있다.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별로 구분되어 있어 계절의 흐름에 따라 꺼내 보기도 좋다. 마음에 와 닿는 기념일이 있다면 별도로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될 수 같다.

각각의 기념일 소개에는 기념일을 수립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 기념일과 관련한 현안이 잘 나와 있다. 해당 기념일과 연관된 기념일도 표기되어 있어 꼬리에 꼬리를 잇듯 기념일을 찾는 재미도 있다. 기념일에 해당하는 실천 내용도 잘 정리되어 있다. 특정 기념일에 감명받아 행동하고 싶다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실천 방법을 따라 해보면 된다.

너무나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결핍인 현실도 기념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세계 화장실의 날이다. 책을 읽기 전에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줄이자는 실천을 예상했지만 전 세계 5분의 3에 해당하는 45억 명이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다. 다양한 기념일을 통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보자. 그리고 아는 게 있다면 실천해야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 했으니 실천도 주저하지 말자. 가까운 친구들과 기념일을 이야기하는 것부터가 실천의 첫 걸음이다.

문재형 /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팀장·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도대체 기후위기가 뭐야?



2022년을 사는 우리에게 기후위기는 낯선 단어도, 낯선 주제도 아니다. 이미 기후위기로 인한 문제는 넘쳐나도록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만 사람마다 체감하는 방식도, 자기 일로 여기는 태도도, 대책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다 다를 뿐.

이 책은 어떤 이유에서든 갑자기 변해버린 ‘기후’를 깨닫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을 때, 쏙쏙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내용을 만나고 싶을 때 읽어볼 만한 책이다.

에너지, 교통, 식량, 소비, 쓰레기, 전쟁이 기후위기에 환경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두루 다루고 있고 무엇보다 각 나라가, 정치가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려준다. 기업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라는 강조도 잊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북극곰과 지구만 강조하는 착한 환경보호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가 움직여야 효과가 있다는 것도 빼먹지 않는다. 그리고 그 활동에 청소년들도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청소년을 ‘미래세대’로 칭하면 의도가 뭐였든 청소년을 결국 현재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마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

저자는 미래가 아닌 현재에서 행동하는 사람들로 청소년을 바라본다. 청소년에게 쓰레기도 줍고, 온라인에서 항의도 하고, 집회와 시위도 주최하고, 선거권을 얻으면 반드시 투표에도 참여하라며 가장 효과적인 변화는 정치적인 변화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그래서 더 반가운 책.

정명희 /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장·녹색연합 전문위원

## 도시를 바꾸는 새



도대체 기후위기가 뭐야?

안아로임쉬셀 지음. 홍화정 그림. 이수영옮김 / 비룡소 / 2022.01.05

새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다. 도시에 대한 이야기이며,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바이오필리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친환경 도시 계획 이론 ‘바이오필릭 시티’를 알게 되었다. 특별히 미국 버지니아 대학교 도시환경계획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관한 23년 넘게 연구와 강의를 해온 도시 계획 전문가인 저자 티모시 비틀리의 글이다.

도시에서도 수많은 생명들이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한 종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모습의 도시를 보여준다. ‘새를 위한 도시’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새 친화적인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여전히 생소하고, 한국의 여타 도시에 적용하는 게 가능할까 싶은 내용이다.

그래도 누군가, 어디에선가 이루어진 실제 사례이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새가 어떻게 도시를 바꾸는 걸까? 새가 있으면 뭐가 좋은데?, 도시가 위험하다고?, 고양이와 새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까?, 집으로 돌아온 칼새, 집을 짓은 새들, 도시 한가운데 생긴 숲, 도시에 서식하는 새의 매력, 새를 위한 건물이 필요해, 협곡의 도시, 겸정애무가 사는 숲을 지켜라!, 새를 위한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목차를 나열한 이유는 질문을 통해, 구체적 실천사례를 통해 도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새와 함께 충만한 삶이 가능한 도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유리창충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률 개정과 유리창충돌 방지테이프 설치 등 많은 시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도로 투명 방음벽이나 아파트 인근 방음벽 곳곳에 유리창충돌 방지테이프가 설치되고 있다. 신기하고 감사하다.

우리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를 구현할 수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선한 체험을 하면 좋겠다.

고대현 / 에코샵홀씨 대표

## 동물복지수의사의 동물따라 세계여행



몇 해 전 라오스를 방문했을 때 곳곳에 ‘엘레판트 트래킹’을 여행상품으로 홍보하는 걸 봤다. 코끼리 등에 가마를 올려 2~3인이 타고 숲을 통과하는 트래킹이었다. 야생 코끼리를 사육하는 것이 금지된 라오스에선 트래킹을 위해 태국에서 코끼리를 사 오기까지 한다고 했다. 코끼리를 만나고 싶지만, 이 방법 말곤 없을까 하며 찾아보다 사육되었던 코끼리를 구조해 돌보는 코끼리 캠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물어물어 찾아간 그곳에서도 한눈에 봐도 건강해 보이지 않는 코끼리들을 이용해 코끼리 트래킹을 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코끼리 트래킹 대신 그 시간만큼 코끼리들을 근처 물가로 데려가서 목욕하고 먹이 주는 걸 하기로 했다. 그 짧은 시간이 코끼리에게 휴식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코끼리 등에 타고 트래킹을 다녔다면 오래오래 죄책감 같은 게 남았을 것 같았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동물을 만나는 경험 대부분은 동물을 매개로 한 상품을 통해서다. 해외의 유명 수족관이나 동물원은 아이들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다. 그러나 이렇게 상품이 된 만남은 동물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동물을 하나의 오락거리, 가두고 마음대로 다뤄도 된다는 생각을 심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신 자연에서 거리를 두고 우연히 마주친 동물들은 비록 동물원보다 훨씬 멀리 짧게 지나치기만 했는데도 경외감과 두려움마저 주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오래오래 기억된다.

이 책은 동물원 수의사였던 저자가 세계 19개국 178곳의 동물원, 국립공원, 동물보호구역에서 만난 동물들의 이야기이다. 동물원이 동물원에게 어떤 곳인지 묻고, 동물원이 역할이 무엇이어야 할지 답한다. 동물원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동물원의 기능이 전시와 관람이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동물원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는 동물원이 아닌 저자가 소개하는 야생동물 생츄어리나 구조치료센터 같은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버킷리스트도 바뀌어야 하고 말이다. 세계 곳곳에서 동물들을 만나면서도 내내 한국의 어느 동물원 어느 숲에서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을 동물들을 떠올리는 저자의 글을 우리나라 동물들의 처지에 대해서도 새로 배우게 된다.

정명희 /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장·녹색연합 전문위원

동물복지수의사의 동물따라 세계여행

양효진 지음 / 척금정더불어 / 2022.01.15



미래에너지 쫌 아는 10대

이필렬 지음·방상호 그림 / 풀빛 / 2022.02.15

## 미래에너지 쫌 아는 10대

기후위기로 인해 에너지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즈음, ‘미래 에너지’에 대해 너무 얕팍한 지식들과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에 대한 음해성 가짜뉴스가 횡행하기도 하고, 난데없이 핵발전이 그린에너지로 둔갑하기도 한다. ‘전기차’나 ‘수소’라면 모두 첨단 친환경인 것처럼 통한다. 아직 실험실 단계에서도 검증되지 않는 핵융합이 미래의 구세주인 것처럼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관련 지식이 맥락 없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다.

『미래에너지 쫌 아는 10대』는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귀중한 책이다. 대학에서 과학사와 교양 과학을 가르치며 오랫동안 에너지전환 운동에 앞장서 온 저자 이필렬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에너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수소, 에너지 저장 시스템과 스마트 전력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기술로 이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저장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화석연료와 핵발전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준다. 또한, 이 모든 주제를 현실 사회의 맥락 속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너지의 문제를 ‘공상과학’의 차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바꾸어야 하는가를 자연스럽게 고민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이 책은 태양 빛 입자가 태양전지의 구성물질인 규소와 반응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전해액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차이, 수소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다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등의 원리를 그림을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차근차근 읽어나가다 보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배터리 등 저장시스템이 미래에너지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지적인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미래에너지 쫌 아는 10대』는 청소년용으로 기획된 책이지만, 성인 독자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좋은 책이다.

남태제 / 다큐영화 감독·환경 저널리스트

## 숲에서 태어나 길 위에 서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건수, 사상자 수는 해마다 늘어날까?  
줄어들까?

답은 다행히도 ‘줄고 있다’다. 그러나 이 답은 사람 즉 인명사고에 한해서만이다. 교통사고로 동물이 죽는 로드킬은 반대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로에서 집계한 로드킬은 2015년에 14,178건에서 2019년 19,368건으로 36.6%나 증가했다. 연간 전국적으로 약 200만 마리 이상의 척추동물이 도로에서 죽임을 당한다.

늠름한 맹수의 이빨을 지닌 삵 영준이도, 팔팔했던 너구리 뜬금이도, 독립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던 담비 노랭이도, 2차선 도로 16개를 건너며 살아야 했던 담비 강쇠도 모두 차에 치어 죽었다. 국립생태연구원의 현장과학자 우동걸 님이 포획해 추적기를 채워 방사한 뒤 쫓아 다녔고 마지막 주검까지 거둔 동물들, 바로 이 책의 주인공들이다.

주인공들이 추적기에 남겨 준 기록으로 알게 된, ‘행동반경인 서식지는 좁은데 이동거리는 긴’ 특성은 우리나라 야생동물의 삶이 고단하기 짜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원인은 무엇보다 서식지를 조각내고 동물을 위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는 길, ‘도로’ 때문이다. 숲에서 태어났지만 인간이 만든 길을 건널 수밖에 없는 동물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자는 고되고 성실한 현장조사를 통해 답을 들려준다.

이름을 붙여준 동물들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며, 야생동물의 생생한 모습에 들떴다가 신호가 멈추는 순간 조마조마하다 다행히 추적기의 수명이 다한 결론이 날 땐 안도하다 주검을 발견할 땐 슬퍼하며 마치 저자와 함께 산을 누비는 것 같은 기분으로 책을 읽었다.

정명희 /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장·녹색연합 전문위원

##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안녕하세요, 비인간 동물님들!

숲에서 태어나 길 위에 서다

우동걸 지음 / 책교강터틀이 / 2021.10.28

남종영 지음 / 북트리거 / 2022.02.10

북극곰과의 조우에서 ‘깨달음’을 얻고 돌고래 제돌이를 구한 탐사 기사를 작성한 이래 다수의 환경 도서를 펴낸 남종영 기자가 동물권과 관련한 여러 물음들을 한 권의 책에 요령 있게 담아냈다. 저자는 “네가 길들인 것에 너는 언제까지나 책임이 있어”라는, 생텍쥐페리의『어린왕자』에서 여우가 떠나는 왕자에게 건넨 말로 책을 시작한다. 그리고 인간이 동물과 맷은 관계의 역사와 교류와 이용 또는 억압과 착취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더 넓고 깊게 생각해볼 수 있게 한다.

그리 멀지 않은 옛날, 즉 신석기 시대까지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경쟁하는 존재였고, 다른 동물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 농경이 시작되면서 가축화되는 동물, 도구와 자원이 되는 동물종들이 생겨났다. 사실 인간의 인간 지배와 인간의 동물 지배는 같이 진행되었다.

저자는 많은 물음을 던진다. 모든 동물은 평등할까? 한국에서 진돗개와 노루는 한때는 칭송받는 대상이었다가 왜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을까? 지능을 갖고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동물 학대와 여성 혐오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동물 복지인가, 아니면 동물 자체에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 채식의 도덕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다윈은 진화의 패턴이 단계를 거쳐 올라가는 ‘사다리’ 방식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가지를 뻗어가는 ‘나무’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발전의 마지막에 가장 진화한 인류가 있는 게 아닐뿐더러, 어디까지가 순수한 인간의 경계인지 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을 최근의 연구들은 알려준다.

동물을 비인간동물, 즉 인간과 몇 가지 이유에서 구별이 가능할 뿐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 안의 종차별주의도 직시할 수 있고 동물권과 관련한 복잡하고 어려운 쟁점들에 대해서도 고민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코로나-19 사태 때 사람들의 활동이 제한되자 야생동물과 생태계가 일시 회복된 현상을 이르는 ‘인류-일시정지(anthropause)’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동물과 생명에 관련한 많은 물음들에 대한 명확하고 간단한 답은 없다. 그러나 일시정지를 하면 많은 것이 보인다는 메시지가 아닐까.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탄소중립,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2021년 IPCC 6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지구의 탄소 예산은 330GtCO<sub>2</sub> 밖에 남지 않았고, 10년 안에 탄소 예산을 모두 써 버릴 상황이라고 한다. 전 지구적인 기후 위기이다.

2021년 4월 5일은 우리나라의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다.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사용할 자원을 4월 5일에 모두 써 버린 것이다.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빠른 것이고, 그만큼 거리낌 없이 많은 물질을 생산하고 소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는 IPCC 권고 수준보다 낮고, 실행도 더딘 편이다. 지금부터라도 더 늦어지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으면,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오늘부터라도 탄소배출 제로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 기후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갈림길에 서있기 때문이다. 탄소배출 제로화로의 절대적 전환 노력이 있을 때, 미래의 후회를 줄이고, 후세대에 희망을 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옛 격언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은 이런 시기에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기후 위기의 문제가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입는 옷, 먹거리, 교통수단, 건축물, 경제활동 등 다양한 소재 속에서 쉽게 설명해주고 있고, 다양한 기후 위기 원인과 문제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와 어떤 방안들이 진정 지구를 위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지구 환경과 사회,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일과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미래를 그려보며 상상력을 자극하는 점들이 유익하면서도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무엇보다 단순한 지식과 정보 제공만이 아닌, 인류가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이를 위해 고민할만한 바람직한 방향과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점이 청소년들에게 좋은 환경 교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과 노력을 오늘부터 조금씩이라도 시작하는 변화가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서정진 / 대지고등학교 교사

오늘부터 시작하는 탄소중립

권승문, 김세영 저음 / 헌연출판사 / 2022.01.18



인류세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우리는 지금 신생대 4기 홀로세(Holocene)라는 지질학적 시간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약 1만 년의 역사를 지닌 홀로세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제지질과학연맹 산하 국제총서위원회에서 인류세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세(Anthropocene)란 2000년 2월, 오존총연

구로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대기 화학자 파울 크뤼천이 제안한 것으로 지금 이 시대는 인류가 지질학적 흔적을 남길 정도로 자연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 시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고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합성유기화합물, 플라스틱, 방사능물질, 콘크리트 등이 인류가 미래에 남기게 될 지질학적 흔적이 될 것이다.

인류가 지질에만 흔적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대기도 바뀌고 있다. 기후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홀로세의 시대 동안 지구 온도는 졸곧 14도를 유지해 왔다. 안정적인 기온은 농업을 가능하게 하고 문명을 발달하게 했다. 그런데 산업화 이후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지면서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전보다 약 0.01% 증가했을 뿐이지만, 폭염, 폭설, 가뭄, 홍수, 태풍, 산불 등의 재해는 상상을 초월하여 증가하고 있다. 재해의 빈도뿐만 아니라 강도 역시 ‘백 년 만의’,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거의 항상 따라올 정도로 점점 세지고 있다.

이영경은 자동차와 자장면, 그리고 전조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누리는 것들의 대부분 사실 알게 모르게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의 편리함이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고 폐기물을 만들고,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을 통해 네 가지 ‘기후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기후위기를 보는 ‘눈’이다. 지구가 보내는 기후위기의 신호들을 민감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후정책에 관심을 갖는 ‘귀’가 필요하다. 정치의 변화 없이 기후정책이 수립될 수 없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후정책을 중요한 어젠다로 부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기후위기를 알리는 ‘입’이 필요하다. 기후위기와의 싸움에

##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

서 승리할 힘은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알고 함께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하는 ‘손’이다. 개발로 파괴되는 현장을 지키는 행동,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살피고 기록하는 행동, 탄소 배출을 돋는 삼림을 보존하고 나무를 심는 행동, 폭염과 한파로 여름과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행동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연대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이 책은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수업’인 동시에 인류세를 살아갈 미래세대에 권하는 우리 모두의 제안이다. “기후위기를 함께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야, 비로소 희망을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윤상혁 /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지구를 살리는 옷장

박진영·신하나·지음 / 청비 / 2022.04.25



패션 산업이 지구의 온도를 뜨겁게 하는 데 일조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패션 산업은 작물 재배부터 시작해 완성된 옷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연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에 달하는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동물을 먹고 입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패션산업에서 일하던 저자들의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모피가 잔인하다는 인식이 많이 퍼진 것에 비해 울이나 실크, 가죽 등 동물성 소재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윤리는 부재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저자는 옷의 내구성을 좋게 만드는 것보다 빠르게 많이 자주 팔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패스트패션보다는 현지에서 만든 로컬 제품을 소비할 것을 권장한다. 물과 화학물질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합성섬유로 만든 탓에 세탁할 때마다 바다로 미세플라스틱을 흘려보내는 패션 산업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자고 말을 건넨다.

저자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까지 나무라지는 않지만, 과연 스스로가 원해서 산 물건인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한다. 물건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탄소발자국을 남기기 때문에, 무결한 소비는 못하더라도 더 나은 소비는 할 수 있다.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의 악순환은 우리의 소비 습관과 형태뿐만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위한 완벽한 해법을 원하지만 그런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물론 어렵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의 말을 남긴다.

최선형 /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매니저

## 어린이환경책을 선정하며

환경정의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어린이 환경책 선정위원 활동이 어느덧 2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다양하고 많은 어린이 환경책을 접해서 읽고 추천하는 작업을 해왔네요. 때론 동심으로 돌아가 어린이 눈높이에서 환경책을 만났으며, 어떨 땐 어린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과 정보들이 가득한 책을 권하는 어른이나 선생님의 입장으로 책을 선정하곤 했습니다. 물론 어느 해를 막론하고 환경책을 만나는 어린이들이 이 책들을 통해 조금 더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지구를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어린이 환경책을 찾아보곤 했지요. 하지만 올해는 기쁨보다는 조금 무거운 마음이 더해졌어요.

몇 해 전부터 극심해진 폭염에 이어 폭우로 인한 사망자들을 발생케 한 기후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과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들은 왜 그렇게 살지 않냐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흡치고 있는 어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가진다면 어떠한 변화든 만들어낼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겠지요.

환경책을 통해 기후위기가 더 심한 재앙으로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우리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래봅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어린이 환경책들을 추천했습니다.

올해는 읽는 내내 감동을 주는 좋은 환경동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선정권수의 제한으로 모두 선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워 12권 안에 들어 가지 않은 책들은 따로 목록을 만들어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책들은 기존에 다루었던 주제를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으로 표현한 것들이 신선했습니다. ‘냉장고가 사라졌다’는 대표적인 업사이클링 그림책입니다. ‘숲의 시간’은 플랩북으로 만들어졌고요. ‘미세미세 플라수프’나 ‘지구에서 가장 큰발자국’은 작가의 독특한 발상이 주제를 지루하지 않게 설명하며 그림이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캔’이나 ‘로봇벌 알파’는 인간의 관점에서만 발전시킨 과학기술의 문제점들을 SF 동화형식으로 풀어 과학의 발전이 인류에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합니다. 이외에도 먹거리, 유해물질, 탄소중립을 다룬 주옥같은 책들을 골고루 선정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린이환경책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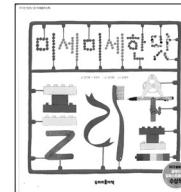
2022년 11월 환경책큰잔치 어린이환경책선정위원회

#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 |  |   |
|--|---|
| 1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 김지형, 조은수 지음, 김지형 그림 / 두 마리토끼책 / 2022.03               |
| 2 냉장고가 사라졌다!                           | 노수미 지음, 김지환 그림 / 한그루 / 2022.05                        |
| 3 모든 치킨은 옳을까?                          | 오애리, 구정은, 이지선 지음 / 우리학교 / 2021.11.15                  |
| 4 숲의 시간                                | 윌리엄 스노우 글, 앤리스 멜빈 그림, 이순영 역, 국립수목원 감수 / 북극곰 / 2022.04 |
| 5 선생님, 유해 물질이 뭐예요?                     | 김신범, 배성호 글, 흥윤표 그림 / 철수와영희 / 2022.07.01               |
| 6 로봇 벌 알파                              | 이글희 글, 최정인 그림 / 그린애플 / 2022.03.31                     |
| 7 라스트베어                                | 해나 폴드 지음, 레비 핀폴드 그림, 이민희 옮김 / 창비교육 / 2022.03          |
| 8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 80억 명의 인간이 1명의 거인이라면 | 롭 시어스 글, 톰 시어스 그림, 박규리 옮김 / 비룡소 / 2021.12.20          |
| 9 애니캔                                  | 은경 글, 유시연 그림 / 별숲 / 2022.03.14                        |
| 10 형제의 숲                               | 유키코 노리다케 지음 / 봄별 / 2022.04.15                         |
| 11 우리는 먹어요                             | 고정순 글, 그림 / 웃는돌고래 / 2022.03                           |
| 12 탄소 중립이 뭐예요                          | 장성익 지음 / 풀빛 / 2022.02.10                              |

##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I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

김지형, 조은수 지음, 김지형 그림 / 두 마리토끼책 / 2022.03

장난감부터 시작해 일회용 비닐봉지까지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을 너무나 많이 사용한다. 놀다가 망가지면 흐, 쓰다가 싫증 나면 흐 던져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이 책에는 주인공 폴리와 작은 알갱이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미세미세한 맛 플라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 폴리가 가지고 놀다 버린 자동차 장난감과 길바닥을 텁구는 비닐봉지, 페트병, 폴리가 입었던 옷들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은 하수도와 비를 타고 바다로 흘러간다. 빨갛고 노랗고 파란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작은 물고기가 삼키고,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삼키고, 그물에 걸린 큰 물고기는 밥상에 올라 폴리의 몸속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플라스틱 작은 알갱이들이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 폴리는 마치 “플라스틱 장난감이 된 거 같다”고 말한다.

폴리에스터 점퍼 가루와 페트병 알갱이, 아크릴스웨터 가루와 플라스틱 오리 분말, 비닐 가루와 스티로폼 가루가 들어간 플라 수프를 먹고 사람과 바다 생물의 몸이 빨갛고 파랗고 노란 알갱이들로 가득 차는 마지막 장면은 사람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작가의 통찰이 뛰어나며 플라 수프라는 제목 또한 기발하다. 콜라주 기법과 석판화 기법을 써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등 밝고 환한 색감이 단순하면서도 선명하게 메시지를 전한다. 그림책을 끝까지 읽고 ‘미세미세한’ 수프 맛을 상상해본 독자라면 누구나 환경을 위해 “No 플라스틱”을 외칠 것이다. 좋은 환경책의 미덕을 고루 갖춘 그림책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읽고 함께 실천하기를 바란다.

책 뒤에는 플라스틱에 관한 정보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 속 작은 실천법이 소개되어 있다.

정경미 / 흥덕마을작은도서관연합회 대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냉장고가 사라졌다면 어떨까? 끼니를 책임지는 먹거리의 대부분을 냉장고에 넣어놓는 현대인의 생활에서 냉장고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먹다 남은 음식을 보관하는 기능과 함께 당장 필요치 않아도 싸게 판매하는 식재료를 사다가 쟁여 놓을 수 있는 것도 냉장고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동실에서 얼린 얼음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냉장고가 보편화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오래전 냉장고가 보편화되기 전엔 찬장에 음식을 보관했었고 더운 날씨엔 음식이 상해 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는 요즘엔 버려지는 음식물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을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생산되는 식품의 1/3이 버려진다고 하니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냉장고 크기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작가는 냉장고의 가출이라는 기발한 발상으로 과소비와 음식물쓰레기라는 주제를 무겁지 않게 그려내고 있다. 냉장고에 너무 오래 보관된 음식들이 잔뜩 쌓여 냉장고를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집 냉장고의 상태는 어떤지 떠올려 보게 된다. 냉장고에 넣어두고도 찾지 못해 새로 음식을 사 온 경험은 누구에게나 한번씩은 있게 마련이니 말이다.

지구 한편에는 먹을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쉽게 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 많은 식품들을 사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냉장고를 통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버려진 물건으로 만들어진 업사이클링 환경 그림책이다. 택배 상자, 과자봉지, 스티커, 비닐 등을 이용해 만든 그림책은 재미있고 친근한 그림체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면서 환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생각해서 버려지기 일쑤인 수많은 쓰레기들이 특특 튀는 상상력에 힘입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새로운 가능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냉장고가 사라졌다’라는 책이 무엇이든 많이 소비하고 쉽게 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태에서 지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가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냉장고가 사라졌다!

노수미 지음, 김지환 그림 / 한그루 / 2022.05

모든 치킨은 옳을까?

오애리, 구정은, 이지선 지음 / 우리학교 / 2021.11.15



이 책은 치킨, 콜라와 햄버거, 피자, 소고기, 라면과 카레, 연어와 망고, 초콜릿 등 우리가 즐겨 먹고 있으며 세계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12가지 대표 음식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았다. 우리에게 친숙한 음식으로 시작해 읽다 보면 세계, 사회, 경제, 지구를 생각하게 되는 책이다.

신문사에서 일한 기자들이 함께 쓴 책답게 스모 닫, 깃털 없는 닭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담겨 있고, 좁은 사육장에서 길러지는 닭과 돼지들의 사정 같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내용은 가볍지 않지만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술술 읽힌다.

‘콜라-세상을 사로잡는 검은 설탕물’처럼 각각의 음식 이름 옆에 한 번에 딱 와닿는 설명을 달아놓아 재미를 주었고 페이지마다 중요한 용어나 개념 등을 박스에 설명해 놓았다. 또 각 음식에 대한 사회적 이슈나 생각해볼 문제를 ‘레시피’라는 이름으로 각 장의 끝에 달아놓았다.

콜라 캔으로 앞머리를 감고 햄버거 이어폰을 낀 채 오른손엔 라면, 왼손엔 치킨을 들고 있는 소녀와 소녀의 귀 옆에서 뛰어오르는 연어. 너무나 귀여운 표지의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음이 슬퍼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크기에 분량도 200페이지 정도로 부담이 없는 이 책을 엄마 아빠랑 우리 친구들이 모두 같이 읽고 함께 얘기 나눠 봤으면 좋겠다. 초등 고학년부터.

## 숲의 시간



숲 속 동물들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회색 다람쥐는 나무 위에 집을 지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수달은 강이 흐르는 곳에 집을 지었네요. 뜨거운 여름철이면 시원한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소리의 집에는 텃밭이 있어서 8월이 되면 당근과 호박을 수확합니다.

동물 친구들의 집 안은 어떤 모습인지, 책을 읽는 아이들은 직접 문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생쥐는 책벌레인가 봅니다. 멋진 서재를 가졌네요. 고슴도치의 집에서는 누군가 뜨개질을 하나 봅니다. 붉은 다람쥐는 음악가네요. 집안에 기타와 바이올린, 악기가 많아요.

아주 흥미로운 플랩북입니다.

앨리스 멜빈은 이 책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 일 년이 넘도록 숲에서 지내며 동물과 식물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부터 저무는 한 해를 보내는 12월까지...『숲의 시간』은 섬세하고 풍성합니다.

겨울나무에 새싹이 웁트는 어느 날... 고슴도치는 막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노란 수선화가 화려하게 봄을 알려주죠. 햅볕이 숲에 깊이 들어오고... 도토리와 개암나무 열매를 찾다 보면 어느새 솔방울이 땅에 수북해집니다. 다시 겨울이 다가오는지 여우의 카라반 앞에는 타닥타닥 모닥불이 이리 오라 부르는, 산책 같은 그림책입니다.

김소희 /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 대표

## 선생님, 유해 물질이 뭐예요?



숲의 시간

윌리엄 스노우글, 앤리스 멜빈 그림, 이순영 역, 국립수목원 김수 / 북극곰 / 2022.07.01

김신범, 배성호 글, 홍윤표 그림 / 철수와영희 / 2022.07.01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건강하자’의 줄임말인 ‘유자’라는 호칭으로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면서 유해 물질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안내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편리함을 위해 수많은 화학 물질을 접하고, 사용하고 있지만 정작 위험성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위험 요소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는다면 안전과 건강에서 멀어진 삶을 지

내게 될 수밖에 없다. 환경 호르몬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진행 중인 커다란 환경 문제다. 질병을 만들기도 하고, 감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며,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쳐 생태계 파괴로 다양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 책은 두 저자가 ‘유자학교’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학생들과 안전 수업을 열었던 생생하고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 변화의 길로 이끌고자 한다. ‘코로나19 가림막은 효과가 있나요?’, ‘액체 괴물은 왜 위험한가요?’, ‘지우개에서도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요?’ 등 33개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된 형식은 어린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이 가는 페이지부터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화학 제품들은 양날의 검이다. 물티슈, 항균제, 소독제 등 우리 생활에 매우 맞닿아 있다는 물건들이 위험성을 알게 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 청소년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생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나가야 한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스스로 바꿔나가는 일은 미래가 아닌 현재부터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길 바란다.

유지현 / 어린이청소년문학서점 책방 사춘기 대표



아이들과 책을 읽으려고 준비한 날이었다. 한 친구가 과학 고구로 만든 ‘꿀벌 태양광 로봇’ 이야기를 꺼냈다. 아이들은 로봇이 훨씬 많은 양의 꿀을 모을 수 있으니 좋다고 했다. 정말 그게 전부인지를 이야기해 줄 좋은 동화를 소개한다.

기업 연합 단체인 ‘얼스피스’는 심각한 환경 문제로 사라진 꿀벌을 대신할 로봇 벌 ‘글로비’를 만들어 냈다. 로봇 벌은 충전만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서도 지치지 않고 수분하니, 식량 부족을 해결하고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릴 거라고 홍보했다. 관광객은 유리 돔 속 인공 정원에서 날아다니며 수분하는 로봇 벌을 관람했다. 로봇 벌 ‘알파’는 회사의 비공식에 투입되어 자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모른 채 회색빛 도시로 나갔다. 그리고 무언가에 이끌려 사라진 줄 알았던 진짜 꿀벌 ‘썬’을 만났다.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꿀벌의 자부심이 있던 로봇 벌 알파는 썬을 만나면서 혼란스럽다. 썬은 검은 원반이 나타나 뿐인 이상한 물을 맞아 죽음을 맞게 되자 알파에게 부탁한다. 그런 꿀벌들에게 촘으로 안전한 장소의 위치를 알려 주라는 것이었다. 회사는 알파가 살아남은 꿀벌이 있는 장소를 찾는 임무를 마치면 사업에 방해되는 꿀벌을 멸종시키려 했다. 알파는 지금껏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하기로 한다. 로봇 벌 알파는 꿀벌들이 안전한 장소로 피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을까?

책을 함께 끝까지 읽은 아이들에게 “꿀벌이 사라지면 인간은 벌벌 떨어야 한 대.”라고 했더니, 그 말이 재미있는지, “개미가 사라지면 진딧물이 진심으로 딛다(되게) 많이 울어요”해서 함께 웃었다.

이양미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



로봇 벌 알파

이글희 글, 최정인 그림 / 그린애플 / 2022.03.31

라스트베어

해나 글드 저음, 레비 민플드 그림, 이민희 옮김 / 청비교육 / 2022.03

기후위기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북극곰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인용되어 왔기에 이제 식상하다고 생각해왔다. ‘라스트베어’를 만나기 전까진 말이다. 그것이 설부론 생각이었음을 라스트베어의 책장을 넘기면서 점차 깨닫게 되었다. 북극권에 위치한 바렌츠해의 작은 섬 베어아일랜드에서 일어나는 북극곰과 인간 아이의 운명과도 같은 만남과 유대감,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우정 이야기는 단숨에 나를 사로잡았다.

겨울왕국을 떠올리게 하는 눈과 얼음의 섬, 베어아일랜드에서 상상 속에서나 만나던 커다란 곰을 실제로 만나고, 곰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 안으며 북극곰을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는 작은 소녀 에이프릴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꿈꾸었던 모험담을 다시 상상하게 한다.

책을 읽다 보면 북극이 지구의 다른 지역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따뜻해지면서 급속하게 녹고 있는 빙하로 인해 곰들이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딴 땅에 도달할 수 없게 된 현실을 알게 되며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이 지구에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북극해의 외딴섬 해안가에도 사람들이 버린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떠밀려오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들의 모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재의 위기이다.

북극곰의 발에 감긴 비닐을 주머니칼로 끊어주며, 먹이를 구하지 못해 초췌해진 곰을 위해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주는 소녀의 모습은 인간의 이기是为了 위해 동물의 터전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어른에 속하는 나를 부끄럽게 만든다. 비록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열어 곰과 의사소통하는 법을 터득해내는 소녀의 모습은 말은 많지만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하는 현대의 어른들의 모습을 반성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작가는 ‘라스트베어’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했을, 희망을 가진다면 크든 작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구를 향한 열정과 동물에 대한 사랑이 묻어나는 이 책을 읽는 많은 어린이들의 마음에도 지구에 대한 사랑과 동물을 이해하는 따뜻한 감성이 오롯이 살아나기를 바란다.

소혜순 / 먹거리정의센터장

##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 80억 명의 인간이 1명의 거인이라면



지구에는 거의 80억 명의 사람이 산다. 하지만 이렇게 큰 숫자는 제대로 감이 안 잡힌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지구에 사는 80억 인류를 모두 ‘뭉쳐 기계’에 통과시켜보자. 세상 모든 사람이 단 한 명의 ‘대왕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대왕 인간의 눈은 축구장만 하고, 다리가 엄청나게 길어서 세 시간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뛸 수 있다. 내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실제 대왕 인간의 머리카락 굵기와 비교해 보자. 뭉쳐 기계에 다른 동물을 넣어볼까? 전 세계 야생 호랑이를 한 마리의 대왕 호랑이로 뭉쳤더니 겨우 대왕 인간의 엄지손톱에 앉을 정도로 쪼그맣다. 기린, 고래도 비슷한 수준이다. 심지어 이들은 세 월이 흐를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 그럼, 인간처럼 수가 점점 늘어나 커지는 생명체도 있을까? 인간과 가까운 개나 소 같은 가축들은 대왕 인간의 허리까지 이르기도 한다. 대왕 닳은 야생에 있는 모든 새를 합친 것보다 3배나 크다. 대왕 인간은 매주 자기 몸무게만큼의 물건을 만들어내고 쉽게 버린다. 쓰레기 뭉치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뭉친 것보다 크다. 대왕 인간이 그 속에서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잠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을 떠 올려보자.

고기 대신 콩고기를 먹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거나 작은 초록 새를 보호한다. 서툴고 나쁜 습관에 빠지기 쉬운 인간이지만 때때로 환경을 생각한다. 우리가 선한 마음에 더 귀 기울인다면, 대왕 엉망진창이 된 지구를 회복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작가의 유쾌하고 기발한 발상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환경책은 뭉쳐 이론에 대한 수학적 설명과 근거 자료를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정리해 두고 있다.

이양미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회



지구에서 가장 큰 발자국 — 80억 명의 인간이 1명의 거인이라면

애니캔  
윤경글, 유시연 그림 / 벌숲 / 2022.03.14

윤경글, 톤 시어스 그림, 박규리 옮김 / 비룡소 / 2021.12.20

국내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시대로,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반려동물이 친근한 존재가 된 만큼, 유기묘, 유기견에 대한 인식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그런 경향들이 자연스럽게 동화에도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에 관한 인식이나 동물과의 관계, 책임의식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애니캔』은 SF적 설정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관계와 생명에 대한 책임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 인상 깊었다. 동면 기술과 특수 먹이를 개발하여 어린 반려동물을 캔에 담아 판매하는 상점인 ‘애니캔’을 배경으로 개, 고양이, 햄스터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고객의 취향에 따라 성향을 맞춤해 준다는 설정이다. 심지어 원하는 만큼만 기를 수 있도록 수명을 정해둘 수도 있다. 이처럼 간단하고 편리해 보이는 구석은 인간들의 욕망을 그대로 구현한다. 주인공 새롬이네 가족도 애니캔을 통해 강아지 ‘별이’를 만났다. 별이가 아프게 된 일을 계기로 새롬이와 친구들은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다. 용기를 내어 문제를 고발하고, 몰랐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구매한 잘못 또한 인정한다. 어린이들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도와준 정의로운 어른들의 캐릭터도 매력적이다.

이러한 설정들이 결코 비현실적으로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소비되기 위해 더욱 귀엽고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져 유전병을 갖고 태어나는 존재들,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언제라도 유기될 수 있는 것처럼 동물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 진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반려동물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것뿐이 아니라 수많은 반성을 도모하게 만든다.

‘반려’(伴侶)는 짹이 되는 동무를 의미한다. 단어에 새겨진 책임과 사랑과 존중은 꼭 키워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린이 스스로 깨닫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이야기로써 유의미한 작품이다.

유지현 / 어린이청소년문학서점 책방 사춘기 대표



가로 285mm, 세로 360mm의 빅북 크기에 가까운 이 그림책은 푸른 숲과 바다가 보이는 곳에 두 남자가 누워 있는 표지로 시작한다. 형제인 것 같은 두 남자는 숲에서 함께 무엇을 하게 되는 건지 궁금증을 안고 책장을 펼치는 순간, 같지만 다른 그림을 번갈아 보느라 좌우로 고개가 바삐 움직인다. 왼쪽 남자는 ‘여기에 있기, 그대로 좋아서’ 라며 작은 터를 잡고 자연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을 사용한다. 오른쪽 남자는 ‘다음을 생각’ 한다며 넓은 터를 잡고 선으로 그 영역을 표시한다. 그리고 기계로 나무를 베어내고 콘크리트로 화려한 집을 짓는다. 책방을 넘길수록 오른쪽 숲은 더 짙어지고 작은 터에 만든 작은 집 주위로 자연친구들이 모여든다. 왼쪽 숲은 아니, 도시는 나무는 사라지고 도로와 자동차를 타고 오는 도시 사람들이 늘어난다. 왼쪽과 오른쪽 중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우리도 오른쪽 남자와 다르지 않다. 편리하고 빠르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인류의 부지런함을 감탄하며 살고 있다. 마치 우리가 지구의 주인인 것처럼 말이다. 환경문제와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상상하면서 그림책을 덮는다. 아니, 다시 펼친다. 천천히 책장을 넘기며 남자의 주변에 있는 동물과 뺨간 머리 여자를 관찰해본다. 숲의 동물들도 뺨간 머리 여자도 오른쪽 남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만 하라고 원하지 않는다면 숨고 도망치고 멀리한다. 이 그림책은 서로 다른 선택의 결과지를 담담하게 보여주면서 섬뜩한 현실을 퍼뜩 깨닫게 해 준다. 이 숲에 도착한 나는 이 숲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숲 속의 많은 생명들 중에 하나의 존재로 만족할 수 있다. 바다가 보이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상상하고 있나요? 숲세권과 바다 뷰를 품은 나의 집을 짓고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나요?

김자호 / 호수책장 대표

형제의 숲

유기코 노리다케 지음 / 북별 / 2022.04.15



우리는 먹어요

고정순 글, 그림 / 웃는돌고래 / 2022.03

오늘도 음식 앞에 앉았나요?

우리 모두는 살기 위해 생명을 취합니다. 웨스 톤 라베르는 “저기 언뜻언뜻 빛나는 먹이사슬, 먹이 그물은 생명권의 두렵고도 아름다운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진실로 ‘성스러운 의식’이라 했습니다. 헤리 스나이더는 「미각의 노래에 관하여」에서 감사기도를 말합니다.

“이 음식에 감사하고, 많은 이들에 노고에 감사하며, 생명의 다른 모습을 나누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먹어요』 역시 그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은 먹어야 삽니다. 숨 쉬는 동안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목숨으로 살아갑니다.”

작가는 ‘한 알의 물에도 우주의 은혜로움이 깃들어 있으며, 종생의 수고로움이 있음’을, 농부의 기도를 담고 뿐여진 한 틀의 씨앗에서부터, 한 방울의 물 그리고 산과 들, 바다의 생명들이 우리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나눔과 수고를 전합니다.

당연히 얹어지는 한 끼란 없음을, 밥상에 오르는 생명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전하며 음식 앞에 낮고 겸허한 마음을 저절로 품게 해주는 그림책입니다.

김소희 / 환경과생명문화재단 &lt;이다&gt; 대표



기후 위기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어왔다. 하지만 왜 일어났고 무엇이 얼마나 문제인지,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정리는 그저 떠도는 몇몇 단어만 남아있을 뿐이다.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내는 더 부족하다. 그저 ‘위기’와 ‘대멸종’ 등의 단어들로 공포감만 키워주는 환경수업은 그만!!

이 책은 기후 위기를 만들어 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라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국가의 정책, 예산, 법과 제도, 경제 활동, 기업 경영, 산업 구조, 일반 시민의 생활 방식을 비롯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표준이 탄소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탄소 중립이란 무엇일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생각해보며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이 책은 단순히 지식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책임’을 인지하고 행동하는 시민의 길을 위한 안내서가 될 듯하다. 기후 위기를 일으키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선진국인데, 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일까? 과연 옳은 일일까? 질문과 확신을 오가며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 가는 ‘행동하는 시민’이 되어 있을 것이다.

김자호 / 호수책장 대표

문수  
우리의  
본부

작성일  
날짜 /  
제작일  
2022.02.10

## 되살리면 좋을 절판 환경책

서재로 사용하는 거실이 점점 비좁아진다. 책으로 도배된 벽으로 모자라 책상 근처는 책 더미가 천장으로 치닫고 있다. 모두 읽으려 구입했지만 들추지 않은 책도 많다. 발간되었을 때 우물쭈물하면 어느새 절판되고 마니 당장 읽지 않을 책도 사들인 결과다. 하지만 미처 구입하지 못해 서점 가에서 자취를 감춘 책도 적지 않다.

군사정권이 기력을 잃어가던 1990년대 초 해금되었던 책들. 지금 찾기 어렵다. “아 옛날이여”하며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정치권력의 눈총 때문은 아니다. 그런 점 전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지만 시대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게 했던 책들은 다시 출간될 필요가 있다. 환경책도 마찬가지다. 『경제학과 환경위기』(나린다 싱 지음, 비봉출판사, 1986년)와 『에코토피아』(어니스트 칼렌바트 지음, 정신세계사, 1991년)는 왜 여전히 재출간하지 않는가? 어라! 『녹색세계사』(클라이브 폰팅 지음, 그물코, 2010년)도 없네.

유명했던 환경책 만이 아니다. 엊그제 눈여겨보았던 책도 어느새 사라졌다. 좋은 책이지만 팔리지 않으니 1쇄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란다. 그것 참! 그러니 발간되자마자 사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천장까지 치솟는 책들을 보며 한숨 쉬지만, 기껏 발간한 환경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

점점 열악해지는 환경, 숨 막히게 만드는 생태 위기 시대에 여전히 ‘개발!’ ‘경제성장!’ ‘선진국!’을 외친다. 심화되는 지구온난화와 눈앞의 석유위기 시대에 후손의 삶은 어찌될까? 세상의 성공은 돈보다 행복에 있을 텐데, 우리는 내일의 위기를 직시하지 않는다. 환경과 생태가 더욱 망가지기 전에, 몸과 마음을 불잡던 책이 부활되면 좋겠다.

1. 누가 존 웨인을 죽였는가	히로세 다카시 지음 (푸른산)	푸른미디어 1991.09.01	13. 에코파시즘 — 독일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자넷 빌, 피터 스타우든 책으로 마이어 지음, 김상영 옮김	2003.10.31
2. 플루토늄의 미래   따님 환경신서 11	다카기 진자부로 지음 파님	1996.10.15	14. 나는 왜 채식주의자가 되었는가 — 채식주의자가 된 미국 최대 축산업자의 양심고백	하워드 F. 리먼 지음, 김이숙 옮김	2004.01.15
3. 사회 생태론의 철학   생명총서 4	머레이 북친 지음 솔출판사	1997.09.10	15. 당신의 차와 이 혼하라 — 자동차 중독 문화에 대한 유쾌한 반란	케이티 앤버드 지음, 박웅희 옮김	2004.04.30
4. 물   도미노 총서 7	기술랭 드 마르실리 지음, 조유진 옮김	영림카디널 1997.10.10	16. 대기오염 그 죽음의 그림자	데브라 데이비스 지음, 김승옥 옮김	2004.07.25
5. 사회생태주의란 무엇인가	머레이 북친 지음 민음사	1998.06.10	17. 희망의 뿌리	웬델 베리 지음, 문채원, 정혜정 옮김	2004.07.25
6. 생태제국주의	앨프리드 W. 크로스비 지음, 안효상, 정범진 옮김	지식의풍경 2000.07.05	18. 석유의 종말	폴 로버츠 지음, 송신화 옮김	2004.08.17
7. 에너지민주주의 — 바람과 물과 태양 그리고 사람이 만드는 녹색미래	이이다 데츠나리 지음, 이후 제진수 옮김	2002.07.23	19. 자연의 죽음	캐롤린 머천트 지음, 이윤숙, 전규찬, 전우경 옮김	2005.08.27
8. 블루 골드 — 지구의 물을 약탈하는 기업들과의 싸움	모드 발로, 토니 클라크 지음, 이창신 옮김	개마고원 2002.08.12	20. 문명과 대량멸종의 역사 — Ecocide	프란츠 브로스위머 지음, 김승옥 옮김	2006.06.15
9. 나에게 컴퓨터는 필요 없다	웬델 베리 지음, 정승진 옮김	양문 2002.10.04	21. 낙원을 팝니다 — 지구의 미래를 경험한 작은 섬 나우루	칼 N. 맥대니얼 외 지음, 이선흘 옮김	2006.09.01
10. 오카방고, 흔들리는 생명	닐스 앤드리지 지음, 김동광 옮김	세종서적 2002.12.10	22. 생태발자국 — 우리의 삶은 지구를 얼마나 아프게 하는가	마티스 웨커네이걸, 윌리엄 리스 지음, 이유진, 류상운 옮김	2006.10.24
11. 꿈꾸는 지렁이들 — 젊은 꿈지모 지음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세상보기	환경과 생명 2003.05.15				
12. 아마존의 신비, 분홍돌고래를 만나다	사이 몽고메리 지음, 송영조 옮김	돌베개 2003.06.23			

23. 조류독감 마이크 데이비스 지음, 돌베개 2008.01.07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정병선 옮김

24. 모든 것은 느낀다 안드레아스 베버 프로네시스 2008.10.10

— 인간, 자연, 생명과학의 지음, 박종대 옮김 (웅진)

진화 | 과학전람회 10

25.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김은진 지음 도솔 2009.02.09

26. 돼지의 추억 사이 몽고메리 지음, 세종서적 2009.07.15

이종인 옮김

27. 몬산토 마리-모니크 로뱅 이례 2009.11.20

— 죽음을 생산하는 기업 지음, 이선희 옮김

28. 강의 죽음 — 강이 바닥을 프레드 피어스 지음, 브렌즈 2010.04.15

드러내면 세상에 어떤 일이 김정은 옮김,  
벌어질까? 이상훈 감수

29. 생수, 그 치명적 유혹 피터 H. 글렉 지음, 추수밭 2011.04.29

환경운동연합 옮김 (청림출판)

30. 슬로우 데스 — 일상 속 릭 스미스, 동아일보사 2011.10.17

내 아이를 서서히 죽이는 브루스 루리에 지음,  
오리인형의 진실 임지원 옮김

## 우리시대 환경고전

1. 가이아 —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제임스 러브록 지음, 홍육희 옮김 / 갈라파고스 / 2004.03.20

2. 간디의 물레 — 에콜로지와 문화에 관한 에세이

김종철 지음 / 녹색평론사 / 2010.06.11

3.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C. 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이반·김종철 옮김 / 녹색평론사 / 2011.04.05

4. 나락 한알 속의 우주 — 무위당 장일순의 이야기 모음

장일순 지음 / 녹색평론사 / 2009.06.30

5.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지음, 마이클 매커디 판화, 김경온 옮김 / 두레 / 2005.06.10

6. 나의 첫 여름 — 요세미티에서 보낸 1869년 여름의 기록

존 뮤어 지음, 김원중·이영현 옮김 / 사이언스북스 / 2008.04.21

7.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세계사

클라이브 폰팅 지음, 이진아, 김정민 옮김 / 민음사 / 2019.10.25

8. 도둑 맞은 미래 — 당신의 정자가 위협받고 있다

테오 콜본 지음 / 사이언스북스 / 1997.03.28

9. 동물 해방

피터 싱어 지음, 김성한 옮김 / 연암서가 / 2012.09.15

10. 만물을 서로 돋는다 — 크로포트킨이 밝힌 자연의 법칙과 진화의 요인

표트르A.크로포트킨 지음, 김훈 옮김 / 여름언덕 / 2015.11.15

11. 모래 군의 열두 달 — 그리고 이곳 저곳의 스케치 | 대한신서 2

알도 레오플드 지음, 송명규 옮김 / 파님 / 2000.04.15

12. 생태학의 담론 — 문순홍 유고전집

문순홍 지음 / 아르케 / 2006.02.15

13. 성장을 멈춰라! — 자율적 공생을 위한 도구 | 이반 일리치 전집 4

이반 일리히 지음, 이한 옮김 / 미토 / 2004.06.23

14. 시민과학자로 살다

다카기 진자부로 지음, 김원식 옮김 / 녹색평론사 / 2011.04.25

15. 에코토피아

어니스트 칼렌바크 지음 / 정신세계사 / 1991.11.01

16. 에콜로지카

앙드레 고르스 지음, 임희근·정혜용 옮김 / 갈라파고스 / 2015.04.28

17.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지음, 이창희 옮김 / 세종연구원 / 2015.04.01

18. 오래된 미래 — 라다크로부터 배우다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양희승 옮김 / 중앙books(중앙북스) / 2015.07.01

19. 우리 공동의 미래 —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하여

세계환경발전위원회 지음, 홍성태 외 옮김 / 새물결 / 2005.07.20

20. 우리들의 하느님 — 권정생 산문집

권정생 지음 / 녹색평론사 / 2008.05.01

21. 원은 닫혀야 한다 — 자연과 인간과 기술

배리 카머너 지음, 고동욱 옮김 / 이음 / 2014.09.0

22. 월든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김석희 옮김 / 열림원 / 2017.07.12

23.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인간 중심의 경제를 위하여

E.F. 슈마허 지음, 이상호 옮김 / 문예출판사 / 2002.03.10

24. 침묵의 봄

레이첼 카슨 지음, 김은령 옮김, 홍옥희 김수 / 에코리브르 / 2011.12.30

25. 한살림선언

장일순·박재일·최혜성·김지하 지음, 최혜성 대표 집필 / 한살림 / 1989

# 올해의 일반/청소년 환경 책 최종 후보도서 목록

No.	제목	저자 / 출판사 / 출간일
1	가장 오래된 과제	에릭 T. 프레이포글 지음, 박경미 옮김 / 한울 (한울아카데미) / 2021.8.10
2	국내 원전, 얼마나 안전한가?	하정구 지음, 재단법인 숲과나눔(도서출판 풀씨) 기획 / 풀씨 / 2022.7.22
3	그레타 툰베리와 달라이 라마의 대화	수전 바우어-우, 텁텐 진파 지음, 고영아 옮김 / 한솔수북 / 2022.6.13
4	그림으로 읽는 친절한 기후위기 이야기	인포비주얼 연구소 지음, 위정훈 옮김, 홍선욱 감수 / 북피움 / 2021.12.8
5	기후 1.5도, 미룰 수 없는 오늘	박상욱 지음 / 초사흘달 / 2022.7.7
6	기후 위기, 불평등, 재앙 — 마르크스주의적 대안	장호종, 마틴 엘슨, 커밀라 로일, 존 몰리뉴, 에이미 레더, 이언 라펠, 킴 헌터, 박설 지음 / 책갈피 / 2021.10.29
7	기후, 위기나 전쟁이냐	윤양원 지음 / 남방동사리 / 2021.12.15
8	기후변화와 사회변동	신범식, 김대현, 박정재, 주병기 지음 / 사회 평론아카데미 / 2022.3.25
9	기후위기 과학특강: "도와줘요, 기후 박사!"	김해동 지음 / 한티재 / 2021.10.28
10	기후위기, 미래를 만드는 방법	박훈 지음, 고려대학교 오정리질리언스 연구원 기획 / 품(도서출판) / 2022.4.27
11	기후정의선언 2021 — 기후 정의 체제 전환	기후정의포럼, 강동진, 구준모, 김상현, 김선철, 이현정, 채효정, 한재각 지음 / 한티재 / 2021.9.13
12	나무의 긴 숨결: 나무와 기후 변화 그리고 우리	페터 볼레벤 지음 / 에코리브르 / 2022. 4.20
13	나의 첫 생명 수업	홍명진 지음/ 뜨인돌/ 2022.9.15
14	나의 친애하는 비건 친구들에게	멜라니 조이 지음, 강경이 옮김 / 심심 / 2022.5.20
15	녹색 계급의 출현	브루노 라투르, 니콜라이 솔츠 지음, 이규현 옮김, 김지운, 김홍중, 김환석, 이현정 해설 / 이음 / 2022.6.1

16	누가 지구를 망치는가	반다나 시바, 카르티케이 시바 지음, 추선영 옮김 / 책과함께 / 2022.1.7	일반
17	단 하나뿐인 우리의 집	달라이 라마, 프란츠 알트 지음, 민정희, 우석영 옮김 / 산현재 / 2021.11.30	일반
18	당신의 쓰레기는 재활용되지 않았다	미카엘라 르 브르 지음, 구영옥 옮김 / 풀빛 / 2022.4.15	일반
19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레시피	브누아 브랭제 지음, 지은희 옮김 / 착한책가게 / 2021.10.26	일반
20	동물 너머	전의령 지음 / 돌베개 / 2022.3.4	일반
21	동물에게 다정한 법	동변(동물의 권리 응호하는 변호사들) 지음 / 날(도서출판) / 2022.6.10	청소년
22	디그로쓰	오르고스 칼리스, 수전 폴슨, 자코모 달리사, 페데리코 데마리아 지음, 우석영, 장석준 옮김 / 산현재 / 2021.8.27	일반
23	딥 에콜로지	빌 드발, 조지 세션스 지음, 김영준, 민정희, 함엄석, 박미숙 옮김 / 원더박스 / 2022.4.15	일반
24	떡갈나무 혁명을 꿈꾸다 — 생태·환경에 관한 35가지 질문	신승철 지음 / 한살림(도서출판) / 2022.5.23	일반
25	뜨거운 지구, 역사를 뒤흔들다	브라이언 페이건 지음, 남경태 옮김 / 씨마스21 / 2022.3.10	일반
26	멸종 위기 동식물, 무엇이 문제일까?	이억주 지음 / 동아엠엔비 / 2021.8.5	청소년
27	멸종을 선택하지 마세요	김정민 지음 / 우리학교 / 2022.6.7	청소년
28	문명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 위에서	진 록스던 지음, 이수영 옮김 / 상추쌈 / 2021.11.30	일반
29	미래가 우리 손을 떠나기 전에	나오미 클라인, 리베카 스테포프 지음, 이순희 옮김 / 열린책들 / 2022.4.15	청소년
30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각	마야 괴벨 지음, 김희상 옮김 / 나무생각 / 2021.9.14	일반
31	미래의 지구 — 온난화 시대에 대응하는 획기적 비전	에릭 홀트하우스 지음, 신봉아 옮김 / 교유서가 / 2021.11.5	일반
32	사라져 가는 존재들	팀 플래치 지음, 장정문 옮김, 조홍섭 감수 / 소우주 / 2022.5.20	일반

33	사라지지 말아요	방윤희 지음 / 자연과생태 / 2021.10.20	청소년
34	사피엔스의 멸망 — 벼랑세, 인류의 존재 위협과 미래	토비 오드 지음, 하인해 옮김 / 로크미디어 / 2021.8.4	일반
35	사회적 농부	토비 오드 지음, 하인해 옮김 / 작은것이아름답다 / 2022.3.25	일반
36	살고 싶다, 사는 동안 더 행복하길 바라고	전범선 지음 / 포르체 / 2021.11.10	일반
37	생태의 시대 - 다시 쓰는 환경 운동의 세계사	요아힘 라트카우 지음, 김희상 옮김 / 열린책들 / 2022.5.20	일반
38	숲이 사라질 때	공우석 지음 / 이다북스 / 2021.10.1	청소년
39	시드볼트	시드볼트운영센터, 산림생물자원보전실 생물자원조사팀, 야생식물종자연구실 지음 / 시월 / 2022.3.20	일반
40	식량위기 대한민국	남재작 지음 / 웨일북 / 2022.6.20	일반
41	식물의 방식	베른다 L. 몽고메리 지음 / 이상북스 / 2022.4.25	일반
42	실험 쥐 구름과 별 -동물실험 후 안락사 직전 구조되다	정혜원 지음 / 책공장더불어 / 2022.4.4	청소년
43	쓰레기 TMI	한겨례21 지음 / 한겨례21 / 2021.9.13	일반
44	쓰레기 사진	안지훈 지음 / 정독(마인드탭(MindTap)) / 2021.10.8	일반
45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동물들에 관하여	리나 구스타브손 지음, 장혜경 옮김 / 갈매나무 / 2021.11	일반
46	안 신비한 동물사전	긴수염, 평화 지음 / 카카포 / 2021.10.21	일반
47	어떻게 지구를 구할까? — 천체물리학자가 들려주는 생태위기 이야기	오렐리앙 바로 지음, 조정훈 옮김 / 구름서재 (다빈치기프트) / 2022.5.8	청소년
48	오늘의 에코 라이프	테사 워들리 지음, 류한원 옮김 / 양철북 / 2022.5.9	일반
49	왜요, 기후가 어떤데요?	최원형 지음, 김예지 그림 / 동녘 / 2021.8.10	청소년
50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	나오미 클라인, 앤리스 워커, 에이드리엔 마리 브라운, 조이 하조, 캐서린 헤이호, 바시니 프라카시, 시에 바스티다, 알렉산드리아 빌라세	일반

51	우리는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에릭 홀트-히메네스 지음, 박형신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1.9.24	일반
52	우리는 왜 기후 위기에 대비해야 할까?	에티엔느 레크로아, 이바르 에클랑 지음, 강현주 옮김 / 청아출판사 / 2021.11.15	일반
53	음식물 쓰레기 전쟁	앤드루 스미스 지음, 이혜경 옮김 / 와이즈맵 / 2021.8.20	일반
54	인류세와 기후위기의 가속	파울 그뤼친 지음, 이별빛달빛(이종찬) 역음, 김용우, 김찬종, 정홍상, 송성희, 이영현, 이지연, 김명진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22.4.10	일반
55	ㅈㅈㅅㅎ(제주산호)	녹색연합, 윤상훈, 신수연, 신주희 지음, 박승환 사진, 조인영 감수 / 텍스트CUBE / 2021.9.15	일반
56	저 많은 돼지고기는 어디서 왔을까?	후루사와 고유 지음, 형진의 옮김 / 나무를심는사람들 / 2022.6.15	청소년
57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	제시카 판조 지음, 김희주 옮김 / 사람in / 2021.12.20	일반
58	전환의 질문, 질문의 전환	구도완, 김수진, 박순열, 서지현, 안새롬, 장우주, 정영신, 최명애, 한상진, 홍덕화, 황진태 지음 / 풀씨 / 2021.10.11	일반
59	지구 닦는 황 대리	황승용 지음 / 더숲 / 2022.4.25	일반
60	지구 오염의 역사 — 산업혁명부터 현대까지	프랑수아 자리주, 토마 르 루 지음, 조민현 옮김 / 에코리브르 / 2021.10.25	일반
61	지구를 위한 마음	김명철 지음 / 유영 / 2022.5.27	일반
62	지구를 위한 변론	강금실 지음 / 김영사 / 2021.9.13	일반
63	지구를 위한 비가 — 전 세계 기후변화의 현장을 찾아가다	다르 자마일 지음, 최재봉 옮김 /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 2022.5.20	일반
64	지구에 대한 의무 2	The Guardian x BOOK JOURNALISM 지음 / 북서널리즘 / 2022.3.7	일반
65	지구의 미래 — 프란치스코 교황과 통합 생태론에 대해 이야기 하다	카를로 페트리니,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김희정 옮김 / 앤페이지 / 2022.4.12	일반

66 지금 우리 곁의 쓰레기: 제로 웨이스  
트로 가는 자원순환 시스템 안내서

홍수열, 고금숙 지음 / 슬로비 / 2022.6.30

일반

67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사이토 고헤이 지음, 김영현 옮김 / 다다서재

/ 2021.10.19

일반

68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변화  
데이터북

박훈 지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기획 / 사회

평론아카데미 / 2021.12.15

일반

69 지역과 생태를 좋아하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요

불광동친구들 이립과 뉴리 지음 / 인비트원

스튜디오 / 2021.8.27

일반

70 코로나, 기후, 오래된 비상사태

안드레아스 말름 지음, 우석영, 장석준 옮김 /

마농지 / 2021.9.10

일반

71 포스트 성장 시대는 이렇게 온다

팀 잭슨 지음, 우석영, 장석준 옮김 / 산현재

/ 2022.6.10

일반

72 한 세대 안에 기후위기 끝내기

풀 호컨 지음, 박우정 옮김 /

글향아리사이언스 / 2022.2.25

일반

73 환경과 연대

강수택 지음 / 이학사 / 2022.3.15

일반

74 환경이야기

피치마켓 지음 / 피치마켓 / 2021.8.30

일반

75 흡친 돼지만이 살아남았다

향기, 은영, 섬나리 지음 / 호밀밭 / 2021.11.13

일반

76 흙 없인 못 살아

이태근 지음 / 흙살림 / 2021.9.15

일반

##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최종 후보도서 목록

No.	제목	저자 / 출판사 / 출간일	어린이
1	1968 밤섬 수비대	방민경 지음 / 우리교육 / 2021.10.5	어린이
2	곤충들이 사라진 세상	마크 르란스키 지음, 지아 리우 그림, 김소정 옮김 / 두레아이들 / 2022.6.13	어린이
3	공장식 농장, 지구가 아파요	데이비드 웨스트, 윌리버 웨스트 지음, 이종원 옮김 / 지구별어린이 / 2021.10.10	어린이
4	그 코끼리는 무엇을 들었을까?	샤를로트 길랑 지음, 샘 어서 그림, 김지연 옮김 / BARN / 2021.11.1	어린이
5	기후 위기: 지구 말고 지구인이 달라져야 해	소이언 지음, 김진화 그림 / 우리학교 / 2022.5.30	어린이
6	길 잃은 곰	전이수, 전우태 지음 / 서울셀렉션 / 2022.3.30	어린이
7	꽃들의 시간	황상미 지음 / 향 / 2021.11.30	어린이
8	나나가 집으로 돌아온 날	김 톰식 글, 해들리 후퍼 그림 / 불광출판사 / 2021.12.31	어린이
9	농부 달력	김선진 지음 / 웅진주니어 / 2022.3.22	어린이
10	늑대원더	로잔느 패리 지음 / 북극곰 / 2021.11.28	어린이
11	달빛을 따라 집으로: 바다거북을 위해 마을을 변화시킨 어린이들 이야기	필리프 쿠스토, 데벼라 흑킨슨 글, 메일로 소그림, 장혜진 옮김 / 청어람아이 / 2022.5.31	어린이
12	도시에 물이 차올라요	마리아 몰리나 지음 / 워즈덤하우스 / 2022.05.30	어린이
13	롱과 풍은 지구인이 될까요?	윤여림, 김규택 지음 / 천개의바람 / 2022.4.20	어린이
14	마리오 몰리나 — 오존층 파괴를 막은 영웅	엘리자베스 러시 지음, 테레사 마르티네스 그림, 이충호 옮김 / 두레아이들 / 2021.11.15	어린이
15	올빼미와 부엉이를 지켜줘	김황 지음, 끌레옹 그림 / 풀과바람 / 2022.7.18	어린이
16	선생님, 인류세가 뭐예요?	박병상 지음, 홍윤표 그림 / 철수와영희 / 2022.6.1	어린이

17	섬진강 수달 가족 이야기	신웅섭 지음 / 진선아이 / 2021.8.17	어린이
18	송이와 꽃봉어 토토	다시마 세이조 글.그림, 황진희 옮김 / 한솔수복 / 2022.5.10	어린이
19	스마트폰을 쓸 때도 물이 필요해!	크리스티나 슈타인라인 지음, 미케 사이어 그림, 박종대옮김 / 책읽는곰 / 2022.5.15	어린이
20	스파이 여우	김형진 지음 / 지구의 아침 / 2022.1.31	어린이
21	씨앗을 지키세요	에마누엘라 나바 지음, 에마누엘라 부슬라티 그림, 김현주 옮김, 이은희 해설 / 책속물고기 / 2022.7.10	어린이
22	아미콜 강아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선주 지음 / 문학동네 / 2021.11.16	어린이 실종사건
23	우리 곧 사라져요	이예숙 지음 / 노란상상 / 2021.8.17	어린이
24	우리의 동지	서유진 지음 / 브와포레 / 2022.2.17	어린이
25	웃으며 지구를 지키는 어린이 에코 시민 가이드	엘리즈루소 지음 / 북멘토 / 2022.1.25	어린이
26	유재와 마카, 대추나무를 지켜라!	탁정은 지음 / 도토리숲 / 2021.10.5	어린이
27	이렇게 같이 살지	김윤경 지음 / 향출판사 / 2021.8.10	어린이
28	이유가 있어서 함께 살아요	아일사 와일드 지음, 아비바 리드 그림, 류충민, 류재현 옮김, 브라이오니 바, 그레고리 크로세티 기획 / 원더박스 / 2021.8.27	어린이
29	이토록 경이로운 숲	얀 파울 스퀴턴 지음 / 원더박스 / 2022.4.20	어린이
30	잘가	고정순 지음 / 웅진주니어 / 2022.4.22	어린이
31	찾아봐요! 복작복작 서울에 사는 동물들	이연우 글, 백조은 그림 / 위즈덤하우스 / 2022.04.18	어린이
32	파랑을 조금 더 가지고 싶어요	권윤덕, 김서영 외 14명의 합덕초등학교 선인 분교 어린이, 강소윤 외 17명의 성산초등학교 어린이 지음 / 남해의 불날 / 2022.5.5	어린이
33	흙이 꾸는 꿈	황율 지음 / 파란의자 / 2022.5.23	어린이

## 2022 어린이 환경책선정위원회

김소희 :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사장

김자호 : 호수책장 대표

소혜순 :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센터장

유지현 : 어린이청소년문학서점 책방 사춘기 대표

이양미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목록위원

정경미 : 흥덕마을작은도서관연합회 대표

## 2022 환경책선정위원회

고대현 : 에코샵홀씨 대표

김현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남태재 : 다큐영화 감독·환경 저널리스트

문재형 : 한살림연합식생활센터 팀장·GMO반대 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서정진 : 대지고등학교

윤상혁 :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정명희 : 환경책큰잔치 선정위원장·녹색연합 전문위원

정영화 : 동네책방개똥이네책놀이터 대표

최선형 :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매니저

발행인 : 2022 환경책선정위원회

기획 및 진행 : 김지연, 황윤희

디자인 : 임유민

발행일 : 2022년 11월 22일

펴낸 곳 : (사)환경정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시민공간 나루 2층

전화 : 02-743-4747

팩스 : 02-323-4748

홈페이지 : [www.eco.or.kr](http://www.eco.or.kr)

이메일 : [ecobook@eco.or.kr](mailto:ecobook@eco.or.kr), [eco@eco.or.kr](mailto:eco@eco.or.kr)

후원 : 우리은행 049-311538-13-004(예금주 환경정의)

이 책은 비매품입니다.

이 책은 재생지 및 친환경용지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사)환경정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2층  
Tel. 02-743-4747 / Fax. 02-323-4748 / [www.eco.or.kr](http://www.eco.or.kr)  
후원 : 우리은행 049-311538-13-004(예금주 환경정의)